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 속에서도 순기마다
자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모
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
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로다 모든 신에 뛰어난 신 하
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
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
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3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6년 11월 19일 (토) 제 161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감사절 특집 : 발행인 칼럼

감사를 깊이 생각하자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미국을 떠나서 제 3국으로 선
교여행을 해보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
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
러나온다. 오래 전 동료 목사와 선교지를 시찰하
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가 "나는 이번 주일 교
회에서 선교보고를 할 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
합시다' 라는 말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하
는 것을 들었다.

개발도상국가의 주거 환경은 아직도 너무나 불편하다.
주택 복도에는 밤에도 전등이 없이 더듬고 다녀야 하고 화
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아무데서나 일을 봐야
한다. 식수는 오염되어 있고 목욕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
는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불편한 것뿐이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와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벌레가 기어 다니고 냄새가 나는 소풍 집
에서 잠을 자야 했고 차를 마시려면 빠져 죽은 파리를 채
로 걸러내고 마셔야 하며 파리가 너무 많아 성경이야기
를 하는 중에도 입으로 파리가 날아 들어와 몇 마리를 삼
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고장 사람들
은 아무 불편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에 사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유대인 신학자 폰테피오는 "생각하라 그리
고 감사하라"를 일생의 표어로 삼
고 살았다고 한다. 인생은 감사함으로
써 그 인격이 빛나고 사랑함으로써 그 성품에
서 향기가 풍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
사가 배어나오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하자. 그리
고 실천하자. 감사, 감사라고 백 번 감사를 말해도 감사는
감사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감사를 깊이 생각하면 축복의 씨앗이 싹트고, 감사를 실
천하면 축복의 열매를 딸 수 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
신 늘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복
될 것인가.


감사,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의 축복권에 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복이
며 특권이다.

2016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인애
하신 손길에 더욱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
기를 기원한다.

감사절 시



곶짜기를 생명수로 채우시는



석정희 (시인)

갈망하던 단비
새벽을 적시는 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어나 번지는 기도
당연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겨울 지낸
빛은 나무에 짝이 돌고
꽃이 피어남도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한여름에 지쳤던
몸과 마음에
풍성한 열매 맺어 담아 주심도
값없이 주시는 당신의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피고 지고 열매 맺고
울다 웃고 슬퍼하다 기뻐함도
당신 주시는 은혜이심을
깊이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통회의 아픔 치유의 기쁨으로
베푸시는 당신
마른 곶짜기를 넘치게 채우시니
평생을 다하기까지 의지할 뿐
이 믿음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3면 감사절 설교 김성국 목사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4면 살림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	--	--	--

GMU추수감사 초청의 밤 (Open House)

ABHE 정회원 | TRACS 정회원 | ATS 정회원

초청의 밤 (Open House)
날자: 11월 22일(화) 7:00pm
장소: GMU 예배실 (은혜한인교회 Miracle center)
행사내용: - 학교탐방 (Camus tour) - 학위인가 및 과정 소개
-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 학생 비자 소개
-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 소개 -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 특별상품추첨
*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면제
*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

선교학박사과정 (DMiss, 유학생 I-20 발급)
2016 하반기-2017상반기 집중강의
○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상황화 연구 (12/5-1/3, 매주월요일 5주)
○ 다문화영성(2017년 1/9-13, 월-금)
○ 가정은 선교지(2017년 1/16-20, 월-금)

2017년도 봄학기 신입생 접수
2017봄 학기 수업시작: 2017년 1월 30일

학위과정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English Track, LA 연장클래스에서 수업가능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Live" 강의
LA 연장클래스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학교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Email: admissions@gm.edu, www.gm.edu



시론

사슴나무골에서(36): 두 나라의 대통령 이야기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대 미문의 분열과 잡음을 드러낸 바, 공화당은 전당대회까지 막 순간까지도 당 지도부 대다수의 외면과 불신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공화당 전당대회 지명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공연히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공언하는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소수자 비하, 극단적인 이민자 정책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남편의 후광을 입고 클린턴 재단을 만들어 강연회를 명목으로 수 백만불에서 수 천만불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교묘히 모금함으로써 국민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켰고, 각종 개인적 정치활동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안이 철저한 국무부 장관 전용의 이메일을 사적으로 사용한 후, 30,000여개의 비밀 이메일 교신을 삭제해버린 사건으로 도덕성, 청렴성, 통정성을 상실해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정직하지 못한 후보라는 오명을 갖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한인들과 이민교회 목회자들조차 누구를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의 말이 가장 솔직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지지정당이 확실한 편이라서 일단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지명되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올해만큼은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뽑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공화당 트럼프의 반전에 가까운 압승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몇 가지로 승리의 요인을 분석했는데, 그 첫째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만큼 기성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식상감이 컸고, 민족주의적인 미국 위주의 정책을 표명한 트럼프의 공약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한 백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숨은 불만이 결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밖에 힐러리의 이메일 사건이 선거직전 다시 수사를 받은 것, 등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은 것은 개신교 기독교인들과 천주교 교인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여론 조사에서 계속 앞서 달리던 힐러리 후보를 패배하게 했다는 출구조사 결과였습니다.

낙태와 동성애를 공공연히 지지하는 진보적인 힐러리 후보보다는, 막말을 일삼고 윤리 도덕적 문제가 많은 후보 같아 보이지만 두 가지 신학적인 쟁점에서 기독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선거는 기독교인들의 입김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며,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와 동성애는 여전히 선거 때마다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사비비 교주였던 최태민과 그 딸 최순실로 인해 40여 년 동안 영적인 아바타 노릇을 하며 살아왔다는 전대미문의 사실이 폭로되면서, 온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100만명 가까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군중 속에는 단골 운동권, 노조, 전교조, 진보연대 같은 급진 좌파, 야당 정치인들만 아니라 상당수의 일반 시민들과 심지어 박대통령을 뽑았던 보수층 시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언론들이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과 그 주변의 난맥상을 탐사 보도하는 일에 가장 앞서고 있는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여당은 이미 설 곳을 잃었고,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는 탄핵, 자진 하야, 그나마 최선의 배려가 있어도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식물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보내야하는 비참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수처스러운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대통령이 영애일 때부터 시작된 잘못된 영적 만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부모를 모두 총탄에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최태민과 같은 무당 사비비 교주를 의지하며 정치인의 꿈을 키워나감으로써 사실은 악의 씨앗을 심어가며 언젠가는 그 열매와 수확을 거둘 수밖에 없는 어찌된 처음부터 예견된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충격을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보수, 보수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공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수 정치만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꿀떡은 병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야말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동안 개교회 성당에만 애썼지, 나라와 대통령과 같은 위치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교회는 보수를 등에 업은 정치, 경제, 사회의 기독교관만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었기에, 나라가 최대의 영적인 혼란에 빠져서도 이 영적인 위기의 현장에서, 분노하고 불안에 떠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한국 교회에 없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시어 주옵소서...

tdspark@gmail.com

고레스 사용하신 하나님, 트럼프 통해 펼친 역사 기대하자!

미 언론, '2016 대선 예상밖 결과에 종교함수 절대적 기여 분석'

'2016 대통령선거 결과는 지구촌에 충격을 안겼다. 힐러리 후보가 근소한 차로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입성하게 됐기 때문이다. 힐러리 후보는 투표율에서는 이겼지만, 후보인단 확보에서 트럼프에게 뒤져, 미국사회를 오랫동안 뒤덮었던 '우리 천정'을 깨지 못하고 낙마했다.

미 언론은 한마디로, 트럼프 당선 원인을 경기침체-이민자 문제 등 현실에 환멸 느끼는 고령자·백인·근로자의 저항이 원동력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진영은 바로 이러한 계층들을 상대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환상과 비전을 전달해,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부와 성공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판타지를 가지고, 그의 백인성, 남성성을 혐오주의와 왜곡된 기독교중심주의와 결합시켜서 트럼프의 당선을 이뤘다.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뿐만 아니라 상하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것은 또 다른 미국인들의 갈증 특히 백인 크리스천들의 오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해석한다. 한마디로, 힐러리의 당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길 정도로, 오바마 정권의 지난 8년 동안 미국사회를 완전히 진보적으로 탈색시켰기 때문이다.



"절대 악보다는 차선의 악을 선택한다"는 심정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던 복음주의 진영의 결단, 이번 선거 결과에서 독심을 발휘했다.

실제로, 불과 선거일을 며칠 남기지 않고 터진 여성 희롱 녹취록 스캔들에도 불

던 공약들을 변경하고 있을 정도로, 예측 가능성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복음주의 진영의 비판적인 리더들을 지적한다. 러시아의 반체제 혁명가 빅토르 세르주가 "사람들은 따를 만한 가치가 없을 때 무가치한

산되고 있는 "반트럼프운동" 또는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시위는 이러한 "트럼프주의(Trumpism)" 확산에 대한 또 다른 시민저항운동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선거전 과정에서 파격적

81% 백인크리스천 지지... 향후 보수정책 주도 변화 기대

오바마케어 폐지, 연방대법관 보수성향으로 교체 등

구하고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ABC, CBS, NBC 등 미 방송사들의 공동 출구 조사를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결과 실제로 남성 유권자가 여성보다 트럼프에게 많은 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Election 2016: Exit Polls).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인종, 종교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경우 무려 81%가 트럼프에게 표를 준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유색인거나 백인이라도 복음주의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합치면 그중 59%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클린턴 후보에 대한 반감이 강한 백인 기독교인의 표가 트럼프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이로 인해 백인 기독교인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만큼 힐러리보다는 그나마 나은 후보라고 지지했지만, 트럼프가 운영하게 될 정국이 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선 직후, 트럼프는 벌써부터 대중에 연합했

기발을 따라 행군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무가치한 것보다 트럼프는 스스로 소외됐다고 생각한 상대적 박탈자들인 고령자, 백인,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약자인 타인을 공격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법 이민자들, 무슬림들이 이들에게 심하게 말하면 "떡이감"이 된다.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표면상이라도 자신의 삶을 통제할 권리를 주장하는 길은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전역으로 확

인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그가 실제로 이같은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는 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적극 제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의 하나가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다.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전국민 의료복지를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했으나 어느 대통령도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실현하지 못했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정받은 대학교입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감사절 설교

여러분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작지만 아삭아삭 씹히면서 단 맛을 주는 대추는 어떠신지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추 한 알

- 장석주 -

저게
저절로 붉어질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글어질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땃별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시인은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붉어질리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추 한 알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추 한 알도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담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에게 담긴 이야기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1. 다윗의 자아상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도 목적도 없이 인생을 허비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하반절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실수로 태어났으며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생애 전체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왜곡된 자신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수많은 생각의 대상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끝은 해피엔딩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자아상이 중요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십시오.

2. 다윗의 초점

윗은 그 날의 똑같은 현실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사무엘상 17:45). 모든 사람들은 그날 골리앗만 보고 무서워하였는데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사무엘상 26:7-9).

다윗은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원수를 당장 없앨 수 있었지만 자기가 일시적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보다 자기의 이야기를 써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무게 있게 생각하

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사무엘하 16:11-12).

다윗은 자기를 향한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비난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현실이요 실체였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3. 다윗의 감사

다윗은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위해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에 배후신 자기 자신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이 너무 놀라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은혜 배후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감사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감사(Thank you)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미국이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역대상 29:12-14).

감사는 무엇으로 하는 것인지 다윗이 일깨워주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을 “찬양”과 “드림”으로 하였습니다.

대추 한 알에도 수많은 은혜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면 다윗에게나 우리에게 담겨진 은혜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써 가시는 놀라운 은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나에게 대한 바른 자아상을 갖고, 어디서나 내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드림”으로 감사합시다.
kpacqmain@gmail.com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시편 139편 13-18절)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사람들은 지금의 환경이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환경과 사람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가장 분명한 현실과 실체는 자기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곳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그를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사울을 단번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찌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

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 비참한 피난 길을 갈 때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배나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

2017 YWAM Senior mini DTS

인생의 전환점, 지금은...



2 Corinthians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For he says, "In the time of my favor I heard you, and i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교육일정

2017년 1월 9일~2017년 2월 3일(4주)

도미니카 베이스 도착일자는 1월 9일이며 베이스 출발일자는 2월 3일 부터입니다.

참가신청

아래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MAIL:seniordtsdr@gmail.com

지원자격

55세 이상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써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기독교인 중에서 최근 마약, 알코올, 담배 및 기타 중독이 없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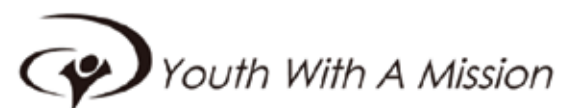
기타문의

미국 +1 808-345-0807(공 혁 선교사), 070-4606-6628(인터넷폰)

+1 808-333-2029(지미 채 선교사)

+1 301-655-2209(전 구 선교사)

도미니카 공화국 +1 809-914-1930(김현철 선교사)



Km 18 Carretera Yamasa Santo Domingo Norte, Republic of Dominicana



목회서신

그 이름을 존귀케 하라!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시편 115:1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115:1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기쁜 순간에 당선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이것은 기적이다!”라는 표현만 했지 그 기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제정되어져서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양심을 존중하는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 주한미군 철수”를 적격하게 만들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며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므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가난은 뇌도 병들게 만든다!

뉴스위크, 학습성과 좌우하는 뇌 부위의 발달 방해 요인 보도(상)

인간 성장 특히 아동기와 소년기 성장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 아니면 천성적 요인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는 항상 첨예하게 대두되는 쟁점이다.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영상이 재생됐다. 2012년 15세에 통학버스에서 탈레반의 총에 머리를 맞고도 살아남은 파키스탄 소녀다.

소년들에게 특정한 인생 실화가 담긴 40개 동영상은 보여주고 이들의 뇌 반응을 지켜보는 실험이다.

남가주대학 '뇌과학/창의력 연구소'는 환경적 요인 즉 가난이 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천성보다는 환경에 따라 어떠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폭력, 지나친 소음, 가정불화, 오염, 영양실조, 학대, 부모의 실직 등의 요소가 성장 중인 어린 뇌의 신경 상호작용 및 형성·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영상은 재생됐다. 2012년 15세에 통학버스에서 탈레반의 총에 머리를 맞고도 살아남은 파키스탄 소녀다.

소년들에게 특정한 인생 실화가 담긴 40개 동영상은 보여주고 이들의 뇌 반응을 지켜보는 실험이다.

고레스 사용하신 하나님, 트럼프 통해 펼친 역사 기대하자

《2면에서 계속》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1기 정부 당시에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정국 구도를 이용해 오바마케어를 관철시켰다.

트럼프 당선자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까지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배경에는 백인 기독교인의 '몰표의 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나왔다. “건강 및 학습결과에서 사회적 계급이 격차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고 하였다.



렇게 나온 새로운 연구 결과 덕분에 천성과 환경 중 무엇이 인간 지능에 영향을 주는지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친구들의 MRI 영상을 본 후였다. “우리의 뇌는 다른 동네 아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발달하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르가라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체와 뇌 발달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단의 폭력이 급증하며 동네가 '열기에 휩싸일 때'를 자매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사는 구역에서는 누가 평생 폭력단에서 일했는지, 초등학교 친구 중 폭력단 새 멤버로 입단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알았다.

누군가 가슴에 총을 맞는 걸 직접 봐야만 폭력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고 임모르디노-양은 말했다. 주변이 혼란스러우면 “세상이 무섭다는 걸 몸이 깨우친다”고 그녀는 말했다.

권총이 자신을 겨누면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결정하는 '투쟁-도주(fight or flight)' 반응에 돌입해 코티솔과 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근육에 에너지와 힘이 모인다.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강도 피해자 106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중 33%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버드대학 아동발달센터 이사장 잭 손코프 박사는 말했다. 그러나 신경과학이 발달한 요즘은 환경과 행동, 뇌 활동을 연계해서 문해력에만 중점을 둔 기존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는 등 교육 및 사회정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새로운 접근 방식 덕분에 사회 및 감정적 발달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손코프 박사는 말했다. 과학 발전으로 환경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집중력을 통제하는 뇌 부위를 어떻게 발달시키는 지 과정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베르가라는 임모르디노-양의 연구에 피험자로 참여해 동영상을 보면서 MRI 촬영을 했다(베르가라는 암 말기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레모네이드를 팔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한다).

연구소 근무 전에도 베르가라는 자신의 삶을 부유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연구팀이 왜 자신과 급우에 관심을 갖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한 건

으로 드러났다. 칼빈칼리지의 케빈 덴 델크 정치학 교수는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기독교인의 파워는 계속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론으로, 이번 대선 결과는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사 44:28)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묵상하게 만든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왕이다.

한 고레스 왕에게 기쁨을 부여 주셨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사랑하고 축복했다는 것은 험사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가 있다. 한 나라가 일어선다면 한 나라는 망하고, 한 문명이 일어선다면 한 문명은 사라진다. 역사상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문명도 없다.

감사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음을 보게 된다. 삶의 현장에서 기대만큼 열매들을 얻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알게 하는 주변상황들이 픽이나 녹록치 않음 때문이다. 특별히 대선이후에 나타나는 미국의 형편들이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만든다.

역사에 대한 섭리적 은혜를 기대

나타난 일들에 대한 이해의 어려운 상황의 압박함을 더욱 부채질한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섭리적 은혜(Providential Grace)를

미국 대선 감정

대선전 필자는 두 가지 마음이 혼재해있다. 동성애를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의 반성경적인 결정들과 이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마땅한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혀지듯이 보수 민족으로서의 우리 한국이민자들의 삶과 조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안타까운 욕심이 만들어내는 클린턴으로의 순응적인 정서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

결국 답은 '하나님 뜻대로'라고 현실의 일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들을 정리했다. 왜 그렇게 상황을 인도하셨을까?

미국은 그동안 청교도의 후손답지 않게 너무 멀리와 있었다. 최근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모녀

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트럼프는 미국의 품격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흥결많은(?) 트럼프를 들어서라도 언론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지와 세속화의 침범 역할을 하는 이 정부에게 패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심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나친 생각일까?

물론, 아직도 트럼프의 정체되지 못한 발언 탓에 우리 이민자의 삶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미래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미국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연약하고 힘없는 보수민족의 아픔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도 놓지 않으실 것이라 믿는다.

한국의 고통스런 상황 미국대선에 대한 감정에서 이

책망과 회개의 돌아침을 요구하셨다. 기도의 사람 솔로몬이라 하여도,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졌을 때 나라를 두 쪽 내어버리고 후에는 이방인의 회초리에 자기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내어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대통령이 이룬다 목사 사칭 대 무당과 그 자손과 간신배들에게 불붙려 국민이 위임한 통치권을 꼭두각시처럼 행한 것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하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분노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단단히 망신살을 뽐냈고, 상성 현대를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는데 이제 경제대국의 꿈은 마치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서 돈이나 많이 모아보려는 졸부의 꿈은 아니었나 생각되기까지 한다.

다시 섭리적 은혜를 기대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섭리적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미국과 한국의 상황,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섭리적 은혜(Providential Grace)를 더욱 의지함 -

기대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B. B 워필드의 말처럼 신자는 모든 사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는 일은 쉽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그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칼빈의 예정론도 미래를 짐작치듯이 알아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세미하고도 구체적인 손길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예포케

역사에 대한 고백적 예정론은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일시적인 예포케(판단중지)를 요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상황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할 수 없는 공황(panic)같은 현실에 대해서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한다.

로서 부부행색을 하던 이들이 자녀입양을 신청한 일이 불거져 근친상간 죄목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지난 수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동성애 대법원 합법화를 통해 얼마나 생활 깊숙한 곳에 반성경적인 동성애가 확장되어왔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었다. 또한 군에서 성전환 수술을 행하는 이들에게 수술비와 휴가를 허락하는 문제, 백악관에 무슬림 지도자를 초청해서 예배하는 행위들과 이제는 동네 마을까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무슬림 집회소와 그 세력들을 목도하게 된다. 합리적인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앙적 변질을 한 대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흥결많은(?) 트럼프를 들어서라도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반성경적인 일들을 보면서 세상은 이번 선거를 가난한 백인 노동층의 반란이라고 평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미국을 향

제 사랑하는 조국 한국의 필절한 상황을 돌아보자. 한국은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공황상태에 빠진 것 같다. 한국의 친구 목사님의 표현은 '마치 전술력으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한 것처럼 멘붕이 왔다'고 표현한다. 흥분하는 친구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다 이유가 있겠지. 기도하면 다 좋게 될거야'라는 무미건조해 보이는 말을 던졌다. 별로 위로가 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만한 답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통치 행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권세자나 하물며 대통령이라 하여도 당신이 기뻐하지 않는 통치행위에 대해 피할 도리가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선민 이스라엘이기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관용하셨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였을 때 죄에 합당한

은혜를 생각해보자. 아직도 새벽 미명을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나라인데, 이토록 짧은 세월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에 생명을 건 사명자들이 파송된 나라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며 답을 찾아본다.

그렇다. 옛날 교회의 요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첫 페이지에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것들을 기억한다. 청교도 신앙의 흔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거의 절반 가까운 교회에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찾아보기 힘들고, 중등학생들은 밤낮으로 공부에 매어달려 주일에도 교회에서 보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공부한 청년들은 결혼, 직업, 자녀에 있어서 3무를 표방함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바쁜 형편을 보게 된다. 더불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며 횡행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11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금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여론조사를 통해 보여준 대로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모두 다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금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에서 솔로몬정 집사

A: 금번에 모든 언론은 힐러리가 92%이상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뚜껑 열자 민심은 달랐습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금번 미국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White Evangelical)들이 도널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한 출구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백인 복음주의자 가운데 81%가 공화당 소속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선의 이변적 현상에는 '청교도 국가'라는 미국의 사상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표심이 깊이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주 한국 국민일보 미션라이프에 난 기사에 의하면 "특히 이번 선거에서 텍사스 주 등 성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중부지역인 '바이블 벨트'는 뽕뽕 뽕뽕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45세 이상의 세

미국의 새로운 영적 방향 기대하며 기도해야

대와 남성층에서 나타난 풀 쏘림 현상은 기독교 가치를 훼손하는 동성애 등 왜곡된 페미니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와 힐러리는 동성애, 낙태, 이슬람, 전통적 결혼관, 신앙의 자유 등 성경적·도덕적 가치가 결린 이슈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들 이슈에서 강력한 이민자 정책, 동성애·낙태 반대 등의 입장을 밝힘으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샀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티비네스트 대표 김태오 목사는 이번 선거가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목사는 "미국은 지난 7년간 오바마 정부는 친동성애, 친이슬람, 반대적 성교육 관련 법안을 추진했다"면서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지난 236년 역사 중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를 보냈다. 이번 선거는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목사는 "친동성애 성향인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한국사회가 상당한 악영향을 받았다"면서 "트럼프의 당선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됐지만 그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기독교적 가치를 얼마나 구현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단적으로 트럼프는 당선 소감에서 '하나님(God)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 그의 믿음의 뿌리는 매우 약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제 국가 지도자로 하나님께 기를 부여 해주셨으니 그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올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타락한 죄성을 지닌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담겨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히 인본주의로 흘러가던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새 정부로 바뀌면서 미국의 새로운 영적 방향을 기대해 봅니다. 잃어버렸던 성경적 가치가 다시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GUM[-Global United Mission] Director 청빙공고

GUM은 21세기 현대선교의 동향에 따라 선교의 "전문화와 다양화" 또한 개교회와 교파, 선교단체를 초월한 "초교파적 선교 협력"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협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선교단체입니다. GUM의 비전인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선교 공동체로서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가지고 전방선교에 나서며, 서로 협력하여, 현지 지도자 양성을 이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께 섬기실 Director를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1. 영혼구원과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이 투철하신 분
2. 선교사역에 합당한 인격, 전문성, 훈련과정, 가족사항, 재정문제 등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3. 선교 경력 8년 이상인 분
4.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그 외 다른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분 우대)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이메일 주소 포함)
2. 최종학력 증명서
3. 목사안수 증명서 혹은 선교단체 선교사 허입 증명서
4. 자기소개서 및 신앙간증문
5. 개인 선교비전
6. 추천서 2통 (교역자, 선교사 각각 1통)

접수마감: 12월 15일까지

우편(18 Essex rd, Paramus, NJ 07652)이나 e-mail (sanghonam@hotmail.com)로 신청바랍니다.

문의: 남상호 목사 (sanghonam@hotmail.com)

Global United Mission

1.5 Generation and Young Families position

1.5세 · 젊은부부 목회자 청빙

Pilgrim Church is seeking qualified candidates for its full-time Pastor of 1.5 Generation [1.5G] and Young Families [YF] position. The 1.5G and YF ministry at Pilgrim Church features about 100 families. Candidates must be a graduate of an accredited seminary institution with a post-baccalaureate degree in pastoral ministry, ordained minister in a reformed denomination (or in the process of becoming ordained), three-to-ten years of experience in family/adult ministry, heart for Korean-American 1.5G and YF ministry and English-language fluency.

필그림교회서 약 100가정 가까이 되는 한인 1.5세와 젊은부부를 위한 사역을 하실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자격은 정식인간된 신학교 및 졸업후 목회관련 소정교육을 마치고 개혁신교단에서 안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고, 약 3년에서 10년정도의 성인 사역경험이 있고, 한인 1.5세와 젊은부부가정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으로써 영어 구사능력이 유창해야됨.

Inquire or send the following documents to hr@pilgrimchurch.org

- CV or Resume
- Personal statement of faith [personal testimony]
- Two sample sermons [audio w/ video preferred]
- Two recommendation letters

Pilgrim Church

18 Essex Road Paramus, NJ 07652
Search/HR Committee
hr@pilgrimchurch.org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지정 부족들(SCHEDULED TRIBES)



인도에 거주하는 23개의 "지정 부족들"의 통합 프로파일. 수 천년 동안 인도는 수많은 종족집단들의 고향이 되었으며, 그 종족들은 저마다의 다양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에는 14개의 주요 언어가 있으며 이 나라 전역에는 또다시 수 백개의 다른 방언들이 사용되고 있다. 힌두교의 복잡한 "카스트"계도로 해서 사람들은 끝도 없이 많은 사회계급, 직업군, "지정부족"으로 한층 더 많이 나뉘고 있다. "지정부족"은 3천만 이상의 인

도에 이르며, 여기에는 브힐, 곤드, 산탈족과 같은 큰 종족들도 포함된다(이들 모두는 별도의 프로파일이다). 하지만, 사회제나 결혼 관습, 언어, 종교와 또 어느 정도로는 그들의 고립된 위치에서 따라 구별될 수 있는 소규모의 지정부족들도 많이 있다. 주요 종족들과는 달리, 지정부족들 각각은 그 자체의 사회적으로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불가촉천민(untouchables)"이라고도 알려진 이 부족들은 가장 하층의 힌두 카스트가 된다. 그들은 상당히 개발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정치와 경제의 주류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1949년에 "불가촉"이란 것은 불법화됐고 이 부족들은 특별대우를 하기 위해 "지정"됐다.

삶의 모습 지정부족들 많은 수가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부족들은 나라 전역에 퍼져 있다. 많은 수는 격리된 지역에서 산다. 그들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지도 사냥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부족들도 적은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부족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데 즉 산림에서 나는 식량을 채집하고 사냥하는 일, 화전농업, 정주농, 농업 임노동, 가축사육, 가내수공업, 기타 잡일들을 한다. 화전농업을 하는 부족들은 대개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 주변에서 산다. 그들은 그곳의 식물을 태워서 땅을 깨끗이 한 다음, 원시적인 도구로 땅을 일구고, 작물을 심는다. 작물을 수확한 후에는, 새로운 땅을 선택해 다음 작물을 심는다. 곡물과 과일이 주요 작물이다. 필요하다면 산림에서 나는 채집물로 식량을 보충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농장의 노동자로 고용돼서 별도의 수입을 벌기도 한다. 부족들의 적은 수는 아직도 반쯤은

방랑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써,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밭을 놓아 잡으면서 1년에 3-4번은 돌아다닌다. 지정부족들 대부분은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살며, 대개는 지도체가 매우 약하다. 부족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다. 그들 공동체의 핵심적인 것 하나는 결혼관습이다. 이 부족들 대부분은 족내혼을 하므로, 자신의 사회집단 내의 사람들과만 결혼한다.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지만, 많은 수는 아직도 부모의 말을 귀담아듣는다. 소수의 부족들에게는 여전히 신부의 가족에게 "신부값(brid price)"을 지불해야 하는 관습이 있다. 때때로, 여기에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신랑측으로서 충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많은 노동과 희생이 따르기도 한다. 씨족은 가족 다음으로 중요하다. 씨족은 공동 조상의 자손들이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초상이 있으면 씨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여 공군에 빠진 가정을 돕는다. 많은 씨족들은 농토와 가산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 종종 단일한 조직으로서 함께 일한다. 많은 부족사회에는 예술, 음악, 춤이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예술적 재능은 집안과 장식하는 모습에서, 옷을 짜서 입는 모습에서, 또 몸을 치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순한 장신구에서 드러난다. 문신은 매우 대중적인 것이며, 많은 부족사람들이 몸의 문신이 드러나도록 옷을 적게 입는다. 그들의 음악에서의 음정은 제한된 옥타브 내에 있다. 부족의 춤은 단지 몇몇 동작만을 가지고 한번 출 때 반복을 한다. 특별한 가구나 춤꾼도 없이 모든 남자, 여자와 아이들이 노래와 춤을 다 함께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얼마 안되는 소규모 부족들에게는 자기들의 언어로 이용할 수 있는 기독교 자원이 없다. 대규모 부족들 몇몇은 선교단체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고립되어 있는 이 부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굳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족공동체 모두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농업, 교육, 보건 분야에서 질실하다. 의료품 공급과 자질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외진 지역에서는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 부족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기독교 사역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아마도 기독교인 교사와 의료팀은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될 것이다.

신앙 지정부족들 많은 수는 가장 강력한 이웃인 힌두교 사람들로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전통관습을 포기했고, 이제는 힌두교 관습들이 많이 따라하고 있으며 특히 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엔 "워싱턴DC를 벗어나 노동자를 만나라"고 충고했다. 샌더스 의원은 1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해야겠지만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2018년 상원의원 재선거와 2020년 대선까지 연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만약 4년 뒤 샌더스 의원이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는 80세에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된다. 샌더스 의원은 무소속으로 30년 넘게 상·하원을 오가며 연임하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 아웃사이더" 열풍을 일으키며 젊은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 내 기독교 세력을 긴장케 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밀려 대선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민주당 정강에 진보 정책을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주적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월가의 개혁과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클린턴의 승리를 위해 지난 한 주간 12개주를 돌며 18번의 연설을 했고 2만여명의 유권자를 만났다. 그러나 대선은 물론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공화당이 승리했다. 샌더스 의원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경선에 참여했던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미국 50개주 전체 동자를 대변하는 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클린턴이 기대만큼 열정과 흥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민주당을 찍었어야 할 많은 백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승부처로 주목됐던 중서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유권자 표심을 잡지 못한 것이 클린턴과 민주당의 주요 패배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약 1만 기독교인 순교, 2천4백 교회 핍박받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 (The International Day of Prayer for the Persecuted Church, IDOP)이 지난 6일과 13일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많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도 요청이 쇄하고 있다. 지난 1998년 매년 11월 첫째와 둘째주를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 기도의 날'로 지정한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는, 2014년 11월부터 1년간 7,000여 명의 기독교인이 순교했다고 발표했다. 올해에는 순교한 기독교인 수가 그보다 3,000여 명 늘어난 약 1만 명이있으며, 핍박받는 교회 수는 2,400개 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도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공격은 안전과 자유함 속에서 예수님을 좇는 용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인단체 월드헬프(World Help) 베론 브루어(Vernon Brewer) 회장도 기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브루어 회장은 "지금보다 핍박이 심한 때는 없었다.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핍박이 심해지고 있다"며 "전세계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어 회장은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이를 전인 6일 IDOP 행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을 이어 미국 지도자가 된 이는 엄청난 난민과 테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여기에 종교 핍박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특사 얀 피겔(Jan Figel)은 지난달 "일부 테러 조직은 조직적으로 살인하고 대량살인까지 불사하며, 실제로 기독교인의 순교와 핍박을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핍박받는 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기도"라며 "어디서든 신앙을 지키기 위한 대가로 고통을 이겨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무슬림 대상 '증오범죄'가 전년도보다 무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무슬림 대상 범죄가 일어났다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14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전에서 '무슬림 입국 금지'를 공약하고, 프랑스 파리테러 등 '이슬람국가(IS)'가 세계 도처에서 자행한 테러의 여파로 무슬림의 피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FBI에 따르면 2015년에는 모두 5천850건의 증오범죄가 신고돼 2014년의 5천479건보다 371건 늘었다. 이 가운데 무슬림을 겨냥한 범죄는 25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154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67% 증가한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미국서 발생한 모스크(이슬람사원) 공격을 비롯해 이들을 겨냥한 범죄 전반이 포함됐다. 9·11테러가 있었던 2001년 모두 481건의 반(反)무슬림 범죄가 발생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해로 기록됐다. 종교를 기반으로 한 증오범죄는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대인, 유대교회 등에 대한 공격도 53% 증가했을 정도로 유대인 역시 '타겟'이 됐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증오범죄를 추적하고 수사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범죄들의 진상을 밝히고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샌더스, 민주당에 쓴소리 '워싱턴 떠나 노동자 만나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진보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75·사진) 상원의원이 2020년 대선 출마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당선 1등 공신 펜스, 독실한 크리스천

미국 대선에서 북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표를 결집시켜 공화당의 승리를 이끌어 낸 1등 공신 중 한 명으로 마이크 펜스(Mike Pence·57·사진) 부통령 당선자가 꼽힌다.



펜스는 지난 9일 당선 소감에서 "정말 겸손해야 할 순간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소감에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그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북음주의자 개신교인이 됐다. 공화당에게 표를 준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펜스가 트럼프 정부에 기독교적 '펜스(Fence, 울타리)'를 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투자자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없는 트럼프와 달리 그는 하원의원과 주지사 등 거친 정치인인데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의원 시절 '바른생활 맨'으로 통했다.

펜스는 정쟁이 있을 때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예의를 지켰다. 술이 제공되는 모임에 나갈 때는 반드시 아내 카렌을 동반했다. 의원 시절 펜스가 모임에 나타나면 동료들은 "이제 잠잠게 말할 시간"이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펜스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 한 때 사제가 될 생각도 했지만 대학 시절 영적 공허감을 느꼈다.

펜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는 (북음주의 교회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에 대해 부러움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가톨릭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음주의 교회를 출석하게 된 데는 아내의 영향이 컸다. 독실한 개신교인인 카렌은 펜스와 교제하던 시절 '승낙(Yes)'이란 글자를 새긴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다녔다. 펜스가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그 대답으로 주기를 위해서였다.

그의 신앙은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낙태를 막는 관련 법안에 서명한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기도하면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 하나님이 이 소중한 생명과 그 가정을 축복하길 바란다."

한 정치평론가는 "펜스는 신앙을 소매에 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옷으로 입는다"고 평했다. 일각에서는 이 민자규제에 찬성하고 증세에 반대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에 동조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서실장에 공화당 주류...윤곽 드러난 '트럼프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70)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자신의 첫 백악관 비서실장에 라인스 프리버스(44) 공화당 전국위원장을 임명했다. 보수강경 이미지가 강한 스티브 배넌(63) 캠프 최고경영자는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기용됐다. 트럼프는 CBS방송 '60분'에 출연해 취임하면 불법이민자 3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백악관 비서실의 두 축으로 배치했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프리버스 전국위원장은 공화당 주류 인사다. 그는 고비 때마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당내 인사들과 트럼프가 충돌할 때마다 중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가 지난 5월 인디애나 경선에서 경쟁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누르자 "사실상 트럼프가 당의 대선 후보"라고 선언했다. 7월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허용하도록 규칙을 변경하자는 크루즈 지지자들의 요구를 제압하고, 트럼프의 대선 후보 선출을 무난히 확정지었다. 프리버스의 임명에 공화당 주류들은 환영했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국가운영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프리버스는 위스콘신주 동양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보다 친분이 두텁다. 라이언 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의회를 방문한 트럼프에게 프리버스를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러나 백악관 수석전략가에 임명된 배넌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배넌은 인터넷매체 브레이크트루뉴스를 운영하던 캠프의 최고경영자로 영입된 뒤 트럼프 승리에 크게 기여했지만 강경우파 이미지가 강한 데다 백인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그는 유대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없다며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백인우월주의를 상징하는) 남부연합기는 영광스러운 유산이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배넌 임명 소식에 유대인 및 이슬람 단체를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CBS방송에 출연해 "취임하면 즉각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며 "추방 대상은 범외국인과 마약사범들이며 규모는 200만~300만명"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멕시코 국경에 정밀 장벽을 건설할 것인가"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일부는 장벽이 될 수 있고 일부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취임하면 연봉으로 1달러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1년에 40만 달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렇다"고 거듭 확인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ABC방송과 CNN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대통령 업무와 기업 운영 사이에 차단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자 "재산을 백지신탁해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스타벅스 커피 컵에 사탄 로고가?

미국 커피업체 스타벅스가 다음 달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탄을 상징하는 로고를 제작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고 있다.



미국 인터넷 사이트 '더 베이비론 비(The Babylon Bee)'는 지난 3일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사탄 모양을 한 디자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사진). 하워드 숄츠 스타벅스 회장이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 회사의 사명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휴를 시작으로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디자인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스타벅스 직원들과 "무시퍼를 맞이하시다"라고 외치며 사탄을 찬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스타벅스가 최근 개발한 디자인은 초록색 바탕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는 모양이다(사진). 미국 전역에 단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00여명 이상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장식했다. 스타벅스코리아 홍보팀 관계자는 "스타벅스에서 사탄과 관련된 로고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한 인터넷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한다.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는 브랜드라 이와 관련된 가십도 많은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인도네시아 교회에 화염병 던져 3살 여아 숨져

인도네시아의 한 개신교 교회에 테러 전과자가 화염병을 던져, 그로 인해 3살짜리 여아가 숨지고 2-4살 어린이 3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14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동 칼리만탄 주의 주도 사마린타의 교회 주차장에 화염병이 날아들었다.

인도네시아 경찰 당국자는 "화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불길기 퍼져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2살에서 4살 사이 어린이 4명이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은 즉각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몸의 75%에 화상을 입은 3살 여아는 하루만인 14일 오전 사망했다. 병원 측은 4살 남자 어린이 한 명도 몸의 절반 이상에 화상을 입어 중태라고 전했다. 나머지 2명은 화상은 달하지만, 열과 연기를 마셔 폐 손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염병을 던진 32세 남성 피의자는 인근 강으로 뛰어들어 달아나려 했으나 배를 타고 쫓아온 주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그가 2011년 자카르타 인근 탕에랑에서 벌어진 가스관 폭파 테러와 온건파 이슬람 지도자 등에 대한 테러 기도에 연루돼 3년 6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 5명을 추가로 체포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의 연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8월 말에도 수마트라 섬의 한 성당에서 10대 청년이 가톨릭 신부와 신자들을 노리고 자살폭탄을 터뜨리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

세계에서 무슬림 수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2002년 발리 테러 이후 국내 극단주의 세력을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올해 초 자카르타 시내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벌어져 민간인 4명이 숨지는 등 여전히 크고 작은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작년 무슬림 '증오범죄' 67% 급증

미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무슬림 대상 '증오범죄'가 전년도보다 무려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무슬림 대상 범죄가 일어났다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14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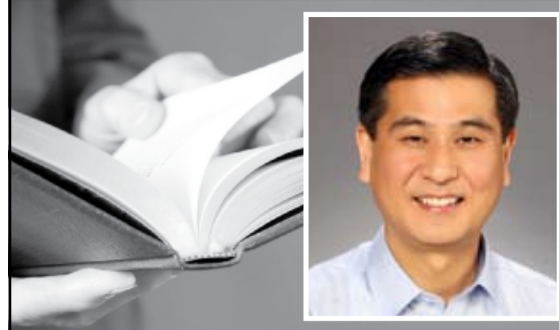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전에서 '무슬림 입국 금지'를 공약하고, 프랑스 파리테러 등 '이슬람국가(IS)'가 세계 도처에서 자행한 테러의 여파로 무슬림의 피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FBI에 따르면 2015년에는 모두 5천850건의 증오범죄가 신고돼 2014년의 5천479건보다 371건 늘었다. 이 가운데 무슬림을 겨냥한 범죄는 25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154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67% 증가한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미국서 발생한 모스크(이슬람사원) 공격을 비롯해 이들을 겨냥한 범죄 전반이 포함됐다. 9·11테러가 있었던 2001년 모두 481건의 반(反)무슬림 범죄가 발생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해로 기록됐다.

종교를 기반으로 한 증오범죄는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대인, 유대교회 등에 대한 공격도 53% 증가했을 정도로 유대인 역시 '타겟'이 됐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증오범죄를 추적하고 수사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범죄들의 진상을 밝히고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샌더스, 민주당에 쓴소리 '워싱턴 떠나 노동자 만나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진보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75·사진) 상원의원이 2020년 대선 출마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어거스틴(3) - 그는 누구인가?(c)

지난 호 요약: 어거스틴은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교부이다. 그의 신학은 당대와 후대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왔다. 그의 사상은 매우 독특하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토대로 형성되었지만,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체험적 신앙 역시 빠뜨릴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저술한 "참회록"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세상의 어두운 세력에 불잡혀 방황하던 그가 회개하고 새사람이 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어거스틴의 사상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세상의 향락에 취해있던 그였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회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참회록"에 분명히 고백하였다. 이 책을 기록하였을 당시의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신학자요 교회 지도자였다.

이에 반하여, 그는 정작 자신이 명성을 얻는 것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가졌다. 그가 "참회록"을 집필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범한 악한 생각과 행위를 거침없이 드러낸 것은, 모든 삶의 과정과 경험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일반적인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미화시키거나 변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지를 독자들에게 알리려 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의도를 "참회록" 앞부분에 서술하였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가장

선하시며, 지극히 강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가장 자비로우시나 가장 공의로운 분입니다. 당신은 가장 은밀하신 분이시나 또한 언제나 함께 하는 분이시며 가장 아름다우시나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참회록, 1.4). 어거스틴은 인간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역설하였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도, 세상의 고등 학문과 철학을 즐겼던 것도,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서 혼동 속에 살았던 것도, 나아가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며 회심하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신하였다. "이는 당신께서 계획하신 섭리로서 당신은 당신의 풍성하심을 만들 속에 숨겨진 샘물을 통하여 나누어 주십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당신이 주시는 것 이상으로는 소원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참회록, 1:6).

어거스틴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경험조차 결국 섭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정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사상은 당대와 후대 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하나님의 말씀

어거스틴은 항상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가 어린 나이에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맛보았던 것도 결코 우연한 것

이 아니었다. 그의 탐구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평생토록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통한 종교 진리에 대한 궁극증을 버리지 않았다. 특히 그는 19세에 철학자 키케로의 "철학의 권유"를 읽고 진리 발견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어머니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지녔던 그였지만, 세상으로만 활짝 열

려있었던 그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나의 장애 소망과 욕망은 바뀌게 되었으며 세상을 향해 가졌던 허망한 기대들은 이제 내게 무가치한 것이 되었습니다. 내 영은 벌써 위대하고 영원히 타오르는 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참회록, 3.4). 그는 이 책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철학을 사랑하는 불이 타올랐다고 서술하였다.

키케로는 기원전 로마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다(BC 106-43). 물론 기독교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거스틴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였다는 것일까? 그것은 헬라 철학이 주었던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결국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기 위하여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이 찾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진리가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이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어거스틴은 자신이 성경을 대하던 교만한 자세와 영적 상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얻을 수 없었음을 고백한다. "교만한 나의 지성은 평범한 성경의 문체를 깊이 이해할 수 없었고, 날카롭다고 자부하는 나의 통찰력은, 성경의

내용을 별로 살펴볼 것도 없다고 성경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참회록, 3.5). 성경은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무리 철학적으로 접근하여도 그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다.

결국 어거스틴은 헬라 철학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20세가 되었을 때, 그 당시 지성인들의 필독서

였던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십범주"를 접하게 되었다. 인간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정의 내려진 내용을 담은 철학서적이었다. 학문성이 뛰어났던 그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읽고 깨달았으며, 남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유명한 철학책이 자신을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내게 거침돌이 되었습니다"(참회록, 4.16).

그 후, 어거스틴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대조를 이루는 플라톤 철학의 문을 두드렸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하였다.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영원적인 영역에 있는 완전한 원형의 모양에 불과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세상의 자연 원리로부터 진리를 유추해낼 수 있다고 가르쳤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철학으로 인해 성경의 진리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는데, 특히 요한복음의 초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겸손의 사실을 알려 주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플라톤 주의자들

의 책을 읽게 하셨습니다"(참회록 7.9).

플라톤 철학이 어거스틴에게 끼친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진리 자체로 인도할 수는 없었다. 플라톤 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훌륭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는 철학의 한계를 깨달았다. 철학은 성경이 지닌 진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발견된다. 그 후로 그는 겸손한 자세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플라톤 철학을 먼저 접한 후에 성경에 심취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진 일이라고 고백하였다.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나중에 플라톤 주의자들이 쓴 책에 심취했다면 그들의 허망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결국 경건의 기초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참회록, 7.20).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철학의 거짓을 발견한 후에,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후로 어거스틴은 성경을 전과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였다. 의심의 눈이 사라졌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눈물로 그 말씀을 대하였다. 겸손하고 운운한 태도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은 성경을 대하는 그의 영혼에 감동을 주셨다. 또한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셨다. 어거스틴에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

■ 회심의 은혜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40-397)는 어거스틴의 생애에 있을 수 없는 인물이다. 암브로시우스는 밀라노 교회의 주교로서, 뛰어난 설교가이며 목회자였다. 어거스틴은 그의 분명하고도 확신있는 설교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 나아가 자신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 어거스틴이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

경험하였다. 무엇보다 그가 심취하였던 마니교의 모순을 발견하였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설과 점성술을 부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터득한 어거스틴이 일생 최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386년에 그가 회심을 경험한 것이다. 그 날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인생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는 곳으로 달려갔다. 통곡하고 싶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발견된다. 그 후 어거스틴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에통하는 마음으로 참회하고 나는 울었습니다.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의 가사 같고 같았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참회록, 8.12).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한 그는 눈물을 닦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 보았다. 바로 로마서 13장 13-1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접한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게 되었다.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몰려쳐 주었기 때문입니다"(참회록 8.12). 어거스틴은 387년 부활절 밤에, 어거스틴은 밀라노 대성당에서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았다.

2) 성경이 보인다 - 롬8:28; 엡1:18; 고전7:20, 24; 살후1:11; 딤후1:9; 벧후1:10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실 일꾼을 부르신다. 또한 주권과 섭리가운데 소명을 받은 자를 준비시키신다. 사명을 맡아 일을 하기 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그랜드캐년이 노아홍수에 의해 형성됐다고 보는 이유 (2)



박창성 박사
세계창조선교회 회장

(3) 그랜드캐년의 양쪽 사면에 테일러스(Talus)가 없다

보통 풍화와 침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절벽 아래에는 부서진 암석과 흙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테일러스'라고 한다. 만약 그랜드캐년이 오랜세월 동안의 풍화와 빙설, 콜로라도 강의 침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계곡 양쪽 사면은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내거나, 아래에 많은 테일러스가 쌓여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랜드캐년을 실제로 가까이 가서 관찰해보면 수직 절벽과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부분이 많으며, 마치 최근에 물로 씻겨 내려간 것처럼 깨끗하고, 많은 양의 테일러스가 보이지 않는다. 그랜드캐년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고원 일대의 침식지형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대홍수가 수백만 년이 아닌,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일어났으며, 후퇴할 때 침식한 물질을 부근에 퇴적하지 않고, 바다로 되돌아가면서 아주 먼 곳으로 운반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랜드캐년은 수백만 년

동안 풍화되고, 적은 양의 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콜로라도 강과 빙설 물에 의해 침식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형은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대홍수에 의해서, 수백만 년이 아닌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수가 끝난 후에는 그랜드캐년을 만든 주된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크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보존된 것이다(잔류지형, relic landform). 테일러스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이다.

■ 그랜드캐년은 수백만 년 동안 콜로라도 강이 만든 것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가 후퇴하면서 남긴 침식 지형에는 전지구적인 대규모의 홍수가 빠른 속도로 흐르며 만들 수 있는 지형, 그리고 적은 수량으로 비교적 천천히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함께 나타

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는 물론이고 일부 창조론자는, 콜로라도 강을 예로 들어, 빠른 속도로 흐르는 대홍수는 절대로 사형천을 만들지 않는다면, 창조과학자들의 대홍수설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한다. 그 대신 그랜드캐년은 콜로라도 강이 수백만 년 동안 침식하고, 풍화작용과 흘러내리는 빙설이 옆면을 깎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과연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만약 그런 오랜 세월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왜 그랜드캐년에는 테일러스가 많지 않은가? 그리고 지구상에는 콜로라도 강과 같은 강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다른 강들은 거대한 계곡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랜드캐년의 전체적인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대홍수가 끝날 무렵이나 끝난 후에, 흐르는 물의 양과 속도가 감소된 상황에서 형성된 사형천 같은 지형에서 초점을 맞추어 잘못된 주장을



Figure 6. 요세미티 공원의 Devils Postpile(왼쪽)의 아래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쪼개져 부서진 암석 파편들(테일러스)이 많이 쌓여져 있다. 그러나 그랜드캐년(오른쪽)은 수직 절벽과 날카로운 모서리가 많은 반면에, 절벽 아래에는 테일러스가 많이 쌓여있지 않고 매우 깨끗한 편이다. 현저한 차이를 비교해 보라(사진: 박창성).



Figure 7. Little Colorado River Gorge-그랜드캐년의 지류에 해당하는 협곡. 평탄한 지면 아래로 수직 절벽의 깊은 계곡이 있으며, 그 밑에는 아주 적은 양의 물이 흐르거나, 물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다. 그랜드캐년은 이처럼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계곡이다. 평탄한 지역에서 빙설과 천천히 흐르는 작은 하천의 침식만으로는 이런 형태의 계곡이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대홍수야야 가능하다.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소규모로 천천히 흐르는 콜로라도 강과 빙설의 침식만으로는 그렇게 광대하고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랜드캐년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참고) 퇴적물이 암석으로 되는 과정

퇴적물이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 지려면 퇴적물의 입자들을 붙여주는 교결물질(CaCO3, SiO2,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암석으로 되는 과정은 콘크리트가 굳어지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교결물질이 충분히 포함되고 두껍게 쌓여 있으면, 짧은 기간에도 암석화 될 수 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는 땅이 갈라지면서 많은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분출한 화산재, 화산가스, 광물들이 바닷물에 많이 용해되기 때문에, 퇴적물에는 충분히 많은 교결물질이 포함

될 수 있다. 노아의 홍수 기간(약1년) 후반부에는 퇴적층들이 완전히 암석화 되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굳어져 있는 상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랜드캐년이 후퇴하는 홍수 물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침식당할 때 날카로운 모서리와 수직절벽을 만들 수 있었고 그 후 완전히 암석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park@wcmweb.org

리더십 코멘터리 (29)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Life is a Journey, not a guided tour

교만한 리더는 실패한다

교만한 리더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는다. 또한 교만한 리더는 착각에 빠져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막아 버리는 자기도취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다 이루었다는 생각을 가진 교만한 리더는 더 이상 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교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들어야 한다. 무엇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는 용납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리더는 비난받을 수 있다. 리더여, 교만한 리더는 실패함을 기억하라.

영웅주의 리더는 실패한다

1943년 7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소련군 간에 벌어진 동부 전선 쿠르스크 전투에서 히틀러는 즉각적으로 공격하라는 예비대 파견사령관 만슈타인의 의견을 계속

다. 식당 중에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이 많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지난 1900년대 초 시장에 건재하던 자동차 업체 가운데 1940년대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늘날 승승장구하는 기업 가운데 앞으로 계속 성장할 기업은 얼마나 될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일부 성공 기업은 규모가 커지고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이는 거꾸로 조직의 패쇄성을 키워 현실감각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마비 상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직사각형의 유리 1만장을 붙트 하나 없이 특수 접착제로 부착해 지은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 Ministries)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의 명소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파산 신청을 시작으로 수정교회는 붕괴되고 말았다. 리더여, 인간의 자만과 욕심이라는 늪 속에 안주하는 조직과 교회는 멸망했음을 기억하라.

성실한 리더가 되라

시편 78:72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integrity of heart, 완전함)으로 기

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영어단어에서 죄(Sin)와 교만(Pride)이라는 단어의 중앙에는 'I'라는 철자가 있다. 중심에 나를 더 높이려는 데서 리더의 교만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도자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관대함으로 나누는 삶(Generosity)을 사는 리더가 되라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기도인데, 사실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이기적인 기도이다. 그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는 그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큰 영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다. 영향력의 목적은 무엇인가? 리더의 영향력은 리더 자신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리더여, 관대함을 가지고 베푸는 지도자가 되라.

극한 상황에 맞서는 두려움 없는 리더십

믿음은 불가피하게 모험을 요구

교만하거나 영웅주의 안주하는 리더는 실패... 극한 상황에도 두려워 말아야 성실하고 겸손하며 관대함 갖고 모험심과 희생정신 가진 서번트 리더 돼야

만한 리더는 단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까지 함께 파멸로 인도한다. "내 임기 중에는 성과 없이 전쟁을 떠날 수는 없다"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몇 대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에도 미국은 가장 없는 월남전에서 손을 뗄 수 없었다. 교만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축하해주거나 칭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다. 지금도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내, 교회 간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C. S. 루이스는 "교만한 자는 믿을 내리다보는데 너무 바빠서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한다"고 충고한다. 영적 책무를 가진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비로소 교만이 해결된다. 소명의 길을 가는 리더여,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예배하라. 영적 책무를 가진 지도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정해야 한다.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 결핍증 환자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교만이 빠져 죽는다. 영적 책무를 가진 지도자는 주위에 탁월한 멘토를 두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솔직히

해서 목살했다. 그 결과, 오랜 준비 기간과 우세한 전력을 갖추고도 독일군은 막대한 전력 피해를 입고 동부 전선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잘못된 리더의 독단이 전쟁의 참패를 낳았다.

일본 미쓰비시는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자리 잡은 록펠러센터 빌딩 군을 소유하고 있는 RGI의 지분 80%를 인수하는 데 총 14억 달러를 지불했다. 당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버블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미쓰비시 경영진은 이를 묵살하고 과도한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후일 입주업체들로부터 받을 임대료를 올려 총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미국 경기가 침체기에 빠지면서 임대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RGI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하게 된다. 잘못된 리더의 독단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리더여, 영웅주의 적인 운영과 독불장군식의 기업운영과 목회엔 미래가 없음을 기억하라.

안주하는 리더는 실패한다

내일과 미래에 대한 가치 있는 청사진이 없는 조직은 대부분 실패한

르그 그 손의 공교함(skillful hands,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다스렸다. 성실한 리더는 완전함과 능숙함을 겸비한 사람이다.

잠언 10:9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the man of integrity)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꺾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말한다. 신뢰성(credibility)이 없으면, 믿음(trust)을 줄 수가 없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모든 믿음과 신뢰는 성실성(integrity)에 기반을 둔다. 성실성을 기초로 한 리더만이 바른 곳으로 사람들이 인도할 수 있다. 썩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이미지만이 아니라 인격이 성실한 리더가 요구된다. 리더여, 탁월한 지도자는 인격과 자질을 겸비한 성실한 사람임을 기억하라.

겸손의 삶(Humility)을 사는 리더가 되라

겸손이 왜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인가? 능력은 겸손으로부터 오고 실패와 부끄러움(Disgrace)은 교만한

한다. "하나님에 관한 더 깊은 지식과 경험에 들어서는 일은 분명 무한한 미지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서는 모험과 같다"는 앨런 허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험 없는 믿음은 가짜다. 모든 지도자들은 타락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지도자의 길은 단순히 생존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거룩자이며 모험의 삶을 사는 존재 방식을 소유하는 것이다.

"Life is a journey, not a guided tour." 인생은 가이드가 안내하는 편 안라고 안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여정길을 떠나는 것이다. 성실하고 겸손하며 관대함을 가진 나그네가 되어라. 그리고 모험심과 희생정신을 가진 서번트 리더가 되어라.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극한 상황에 맞서는 두려움 없는 리더십을 가진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고난 실습

내가 학교에서 맡은 일은 강의도 있지만 행정 일을 겸한 일이다. 늘 행정 일이 바빠서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는 시간이다. 그러다보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연구 프로젝트를 할 생각은 아예 못하고 지냈는데 몇 주 전에 "고난이 삶에 주는 유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개발하면 좋은 강의를 선별해서 후원을 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다른 때 같으면 별 생각없이 "연구? 좋겠다" 그러면서 지워 버렸을 텐데 그 날의 이메일은 눈길을 끌었다. "고난"이라는 주제 때문이었다. 나 스스로가 오랜 시간 동안 부대끼며 생각해 온 주제여서 그런 것 같았다. 그러잖아도 바쁘게 준비하러면 시간도 많이 필요할거고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한다고 선택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네 왜 저주 해보고 싶은 것인지. 결국은 몇 주간을 완전히 nerd(공부벌레) 수준으로 도서관에 틀어 박혀서 강의를 준비했다. 가을이 왔다고 파란 하늘이 손짓을 하는데도 못 본척하느라 쉽지 않았지만 말이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 중 하나가 인간의 삶에 있는 고난과 하나님의 연관일 것이다. 왜 사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악을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인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미리 막으실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물어온 것이다. 고난의 해석은 여러 종류가 있다. 어떻게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어둠이라고 고백한 시인의 말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백성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은 무능력한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며 등을 돌리기도 한다.

인생의 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면 주변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마음으로 고난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교과서적인 대답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고난은 머리로 겪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당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설피게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면 안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너무 좋은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천국에 데려 가셨나 봐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건강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라는 말일 수 있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전혀 위위가 되지 않는다. 아니 안하느니라 못하다. 차라리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 백배 나은 것이다.

고난에 대한 강의안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지난 주간에 마치 고난 실습을 시키듯이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연이어서 생겼다. 아들이 대학원으로 가면서 데리고 간 강아지를 갑자기 큰 개가 와서 무는 바람에 여러 군데를 꿰매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목요일 낮에 연락이 왔다. 다행히도 내장까지는 상하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타주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제일 앞에서 가고 있던 내 차를 뒤 차가 연속으로 세 번이나 받는 사고가 있었다. 삼중 충돌이어서 많이 놀랐다. 감사하게도 가운데 긴 차는 많이 부서졌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연속 세 번을 받는 바람에 걱정이 되었던 목, 등의 통증도 심하지 않다. 고난에 대해서 연구만 하지 말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껴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제 그만 있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 Tel: (206)579-7576, Fax: (206)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일오후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ptic City, MD 21042 http://www.belch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일예배: 오후 8:00 중동문화예배: 오전 10시 (월-토) / 오전 11시 (일) 영, 권, 무례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일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일오후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전 9:00(월-금) 토요일: 오전 8: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os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8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andyok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강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시애틀: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rs.com	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전일예배: 오후 2:00 수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43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시애틀: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일오후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www.mpcow.org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헌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 www.jkc.org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강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전일예배: 오후 1시 수 일 예 배: 오후 7시 새 생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토요칼럼

라면 한 그릇의 행복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관심 있게 소개된 드라마 평을 보고 얼마나 재미있기에 하며 찾아서 보았다. 대통령 후보의 숨겨진 딸이 암계(暗計)에 의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숙녀가 되었으나 속박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어느 날 그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숨어서 보고는 라면이 먹고 싶어 밤에 살며시 식당에 내려와 라면을 찾았으나 끊이는 방법을 몰라 실망해 하는 모습이 처연하도록 슬펐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 장면을 목격한 경호원이 라면을 끊어 먹을 수 있는 준비를 몰래 해놓았다. 밤에 내

려와 그것을 본 아가씨가 너무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찾고 끊어진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 세상이라도 다 가진 듯 흐뭇해하며 행복해 하는 장면이 눈에 밟혔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행복해 하는 것을 시기한 마귀가 행복을 숨기기 위해 세상 여기저기를 헤매으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행복을 사람의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다. 그래서 행복은 세상의 어디에서도 찾아지지 않고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꺼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잘 묘사한 시가 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지성인들에게 존경받고, 아이들로부터 호의를 얻는 것/정직한 비평가들의 인정을 받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아름다움을 분별할 줄 알며/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아이를 낳든, 한 폐기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자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을 때/자신이 한 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 시는 8대째 목사가 된 에머슨의 시다. 랠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년 5월 25일-1882년 4월 27일)은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그의 세상을 보는 눈은 맑았다. 성공에 대한 그의 개념도 세상의 기준과 달랐다. 그의 사상과 성공에 대한 가치관은 그의 깊은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오늘을 산다면 드라마 속의 아가씨처럼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노래하며 춤을 췄을지도 모른다. 그의 내면을 표현한 시를 보건대

그는 무엇에도 때 묻지 않은 자기만의 행복을 꺼내 세상에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어 했을 것만 같다. 처음에 언급한 드라마는 아직 초반이라 어찌 전개될지 모르겠다. 서두를 보니 권력의 암투와 가진 자들의 비리에 맞서려는 철없는 정이 울분을 토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바라기는 억압과 암울한 미래의 무게로 눈물을 흘리는 아가씨가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그 행복만큼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거나 꿈이 있는 내일과 같이 너무도 당연한 인간 간의 조건을 거창한 말로 수식하며 생색을 내는 그런 양념되고 성형된 논리로는 절대 라면 한 그릇의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인간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참다운 인성을 지닌 사람만이 하찮은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흔적이 남겨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느끼며 흐뭇해하는 것을 지켜볼 자격이 있는 까닭이다. 에머슨의 성공론은 거창하지 않다. 특별한 것도 없다. 어제보다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것은 너무도 평범하다.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며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도드라질 만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 아무도 성공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성공이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에머슨이 만약 오늘을 산다면 그가 드러낸 성공의 기준에 비춰 라면 한 그릇을 앞에서 충분히 자축해 하며 춤을 췄을 듯하다. 그 춤사위가 바로 살맛일 것이다.

hanmac@cni153.org

미주 땅에도 울려 퍼진 대통령 퇴진 함성

500여명 참여...LA총영사관-임마누엘교회 가두행진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 100만인파가 모여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LA에서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LA총영사관과 임마누엘교회에서 500여명의 한인들과 일부 외국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재외동포 행동은 11일 오후 6시부터 LA총영사관 앞에 모여 '국정농단, 국민기만, 박근혜 퇴진'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영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친 뒤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임마누엘교회 앞에 모여 박대통령 하야 및 탄핵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야' 등을 함께 불렀다.

이날 집회는 종교계 인사들은 물론, 노인부터 어린이들, 외국인들까지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한 노인은 "4년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표로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LA총영사관과 임마누엘교회에서 500여명의 한인들과 일부 외국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모습. 지지했다. 하지만 최순실과의 관계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정부와 여당에게 나라를 맡기면 한국이 망할 것 같아 겁이 났다"며 이날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영사관 집회 현장엔 20여 명의 보수인사들이 '박근혜 하야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집회가 열리기전 보수단체

인사와 박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단체 인사의 몸싸움이 벌어지며 긴장 국면이 연출되는 듯했지만 서로 자제하자며 긴장국면은 진정이 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를 위한 집회는 세계 주요도시 40여 곳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박준호 기자)



제1차 통일선교 전략포럼 2016이 은혜한인교회 미라클센터 예배실에서 열렸다

통일에 대한 성경신학적 정의 원리 실천

통일선교전략협의회 주최 '통일선교전략포럼'

통일선교전략포럼이 통일선교전략협의회 주최로 14일 오전 9시부터 12시30분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미라클센터에서 개최했다.

소그룹·달란트쇼 새 프로그램 제공 GKYM 세계청년선교대회 마감 한달 남짓

뉴욕 로체스터에서 열리는 제 10회 GKYM(Global Kingdom Young-Adult Mission) 세계청년선교 대회 마감일이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동 대회는 12월 27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되며 1세, 15세, 2세가 하나가 돼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대회다. 주최 측은 올 대회에 새로 진행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한 가지는 청년들이 원하던 소그룹 모임이 진행된다. 참여하는 청년들이 그룹으로 편성돼 대회 동안 같이 모여 교제하며 들은 강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는 GKYM's GOT

TALENT라는 이름으로 달란트쇼가 진행된다. 청년 참가자들의 퍼포먼스가 언제나 하이라이트였던 GKYM 대회에서 올 해는 예선 1, 2

차를 라운드를 통과한 10명/팀의 참가자들이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된다. GKYM's GOT TALENT 참가대상은 올 해 대회에 등록된 일반 참가자이며 참가 종목은 복음을 전하는 찬양, 춤, 연극, 코미디, 연주, 마임, 기타 등이다. 1차 예선은 비디오 제출로 20명이 뽑히며 2차 예선은 라이브 예선으로 토론토에서는 12월 10일, 뉴욕에서는 12월 11일에 진행돼 10명이 뽑히게 된다. 이 10명은 대회에서 이루어질 본선 라운드에 진출해 상품으로는 1등은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 2등은 IPAD 미니, 3등은 250달러 상품권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의 문의는 (917)922-7608, ROCHESTERGKYM@GMAIL.COM로 하면 된다. 대회 등록은 www.gkym.org에서 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까지 300달러(숙식포함)에 등록할 수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재미 탈북자 지원회(ANKA)가 주최한 북한 탈북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 강연회에서 로버트 홍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북한 탈북민들 어떻게 돕나...

재미탈북자지원회 주최 강연회

재미탈북자지원회(ANKA, 회장 로버트홍 변호사)가 주최한 '북한 탈북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의 탈북자 관련 강연회가 9일 오후 6시30분 캘리포니

아인터내셔널 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 강연자로 나선 로버트홍 변호사는 "지난 2007년 ANKA가 세워지고 10년째 북한탈북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 통과 당시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신청을 하면 살수 있다고 해서 오게 됐다. 그러나 당시 이민법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현재 미국 내에 탈북민들이 400여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중 200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돼 주권을 받았으며 180명이 난민 신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도움은 어떤 이용 가치 등을 생각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의혁 목사(전 하나원교회), 이종환 목사(빛나라교회), 탈북민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제니퍼 씨가 패널로 나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2016 가을 희망미니콘서트에서 크리스 전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리움' 주제..관계전도 시도

2016 가을 희망미니콘서트 성황

2016 가을 희망미니콘서트가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작가의 집에서 13일 오후 6시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희망콘서트 디렉터 크리스전 목사는 "공연 때마다 조금씩 더 발전

되고 좋은 공연하려고 노력했다. 이번에는 밴드까지 준비해서 많은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노래와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용기 얻

어 힘든 상황에 같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특별히 관계전도다.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전도지를 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교회가 싫어서 떠난 분들이 희망콘서트를 통해 다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을 볼 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준우 씨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에이미김(남가주사랑의교회), 박경준, 정지, 정선화, 정다희(새생명비전교회), 신용주, 헨리리, LA 브라비징어즈(지휘 이경원)가 출연해 노래와 연주를 선보였다.

희망미니콘서트는 삶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친 분들을 건전한 음악으로 격려해주는 콘서트다. 1년에 3차례 공연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불우한 이웃, 어린이 병원, 그리고 노인 아파트 등을 방문해 공연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 교회음악박사과정 신설 후원의 밤에서 연주회에서 라크마콰이어 단원들이 찬양을 들려주었다.

11년의 결실, 꽃피우기위해 노력...

월드미션대 교회음악박사과정 신설 후원의 밤

월드미션 대학교·대학원(총장 송정명 목사) 교회음악박사과정 신설 후원의 밤이 지난 12일 오후 6시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1부 환영과 교제, 2부 음악학과 연주, 3부 음악학과 현황과 비전 나눔, 4부 감사와 나눔으로 진행된 후원의 밤은 이금희교수와 서소희동문의 사회로 시작되어 송정명 총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송정명 총장은 환영사에서 "모든 교계와 크리스천들은 찬송과 찬양, 음악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다. 그

러나 교계가 혼탁해지고 음악도 혼탁해져 성도들이 혼돈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혼란을 바라보며 11년 전 월드미션에서는 음악반을 신설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음악인 양성과 함께 지금까지 장족의 발전을 이뤄왔다. 이제 월드미션은 2017년 2월 정식으로 교회음악박사과정 신설과 미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교회음악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한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풀타임 교수를 세 분 이상 모셔야

되고 많은 재정이 필요해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홍보와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성환 이사장이 식사기도로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2부 음악학과 연주는 밴드팀 김영수, 이정민, 민경호, 황신에 씨의 '죄짐 많은 우리 구주'의 연주가 오프닝곡으로 연주됐으며 테너 오위영('Turandot' by Puccini), 듀엣 김희우, 조지영('Norma' by V. Bellini), 정종원 목사(예수), 소프라노 신신미('I Puritans' by V. Bellini) 등이 공연했으며 라크마콰이어 팀의 '십자가'와 'Psalm 150'을 들려줘 박수갈채를 받았다.

3부와 4부에서는 음악학과 활동과 동영상, 발전 계획 등의 학교 소개와 함께 후원의 시간을 가졌으며 박욱 이사에게 감사패 증정, 음악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이정민에게 장학금 전달이 있던 뒤 노진준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음악학과를 개설한 지 11년 만에 장족의 발전을 이룬 월드미션대학교를 축하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뤄갈 것을 기대하며 마음을 모았다. (이성자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교협 시무예배 및 이취임예배

제30회기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중국 목사) 시무예배 및 회장 및 실행위 이취임예배가 11월 21일(월) 오후 5시 뉴저지장로교회(500 Broad Ave. Palisades Park, 담임 김도완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201)262-7775

뉴욕교협 제43회기 이취임 및 시무예배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 제43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 제31대 이사장 이취임식과 시무예배가 11월 29일(화) 오전 10시30분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718)279-1414

뉴욕교협 이단대책위원회 정기총회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 산하 이단대책위원회(회장 유상열 목사) 정기총회가 오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열린다.

▲문의: (917)862-0523

뉴욕예베에셀선교교회 임직예배

뉴욕예베에셀선교교회(공동담임 최창섭 이재홍 목사) 임직예배가 11월 27일(주) 오후 5시 동 교회당에서 열린다.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목사안수 공재규 △집사안수 이현재 △권사임직 김경미, 성장희, 최인숙.

▲문의: (718)570-5858

회장후보 2명... 김상태 박태규 목사

뉴욕목사회 45회기, 부회장 후보 문석호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김영환 목사) 제 45회기 정 부회장 후보가 확정됐다. 후보자는 회장 후보에 김상태 목사(부회장, 주님의교회)와 박태규 목사(뉴욕새침장로교회), 부회장 후보에는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가 각각 등록했다.

선관위(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지난 8일 오후 5시 임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14일 최종 후보를 발표했으며 15일 목사회 사무실에서 후보자 언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첨결과 기호 1번 김상태 목사, 2번 박태규 목사로 결정됐다. 부회장 후보인 문석호 목사는 출석하지 않고 지면으로 출마소견을 밝혔다.

임병남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운영체제를 발표하고 선거운동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나갔다. 임 목사는 "목사회는 교협과 달리 목사만 회원이 될 수 있다"며 "특별히 언론이 목사회가 잘 운영되도록 감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원을 만들어 후보자 외에 2명이 공식적



뉴욕목사회 후보자 언론 간담회에서 회장 후보자들이 기호추첨을 마치고 기념 촬영 했다. 왼쪽부터 허윤준, 임병남, 박태규, 김상태, 장현숙 목사

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등록된 이메일과 전화(카톡 포함)만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선거용 유인물은 선관위의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 선거제칙을 위반한 후보자는 자격 박탈되며, 다 회원 및 비회원들의 처벌도 삽입했다.

목사회는 이번 선거에서 교협과 동일하게 투표함을 설치하며, 당선자는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3차 투표에서 종다

수자로 결정한다. 또 단독후보가 투표할 경우 2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못 얻을 경우 탈락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번에 적용되는 제칙을 총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은 오찬 후 두 후보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왜 부회장이 아니고 회장으로 출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태규 목사는 현 부회장 김상태 목사가 지난 1년 동안 특정 선교단체와 석연치 않은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교계에

서 다른 후보를 원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먼저 그 선교단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김상태 목사는 그 선교단체와는 임기 동안 교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후보들의 약력 및 출마 소견.

▲회장후보:

△기호1 김상태 목사/PCA/감사, 현 부회장/목사회는 전인적으로 신학과 신앙과 삶에서 재충전의 용광로 역할을 해와 왔다. 회장 퇴임 후에도 뉴욕교협에서 존경과 사랑 받도록 하겠다.

△기호2 박태규 목사/대한예장미주동부노회/부서기, 감사/이단대책 앞장, 구국기도회 전개, 목사/사모위한 문화 활동, 목회도움 세미나 개최, 비회원 참여 촉구.

▲부회장 후보:

△문석호 목사/ARP/신학위원장/목회자 영적건강과 친목에 최선, 목회자 본연의 자세 이루도록 배움과 나눔의 시간 마련(세미나, 기도회 등), 목회자 다함과 아름다운 협력관계(소식지 제작),

후보자들은 총회전날인 27일까지 언론이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원정 기자)



RCA 뉴욕한인교협 월례회 및 사모초청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 뉴욕 선교찬양제에서 찬양단이 찬양하고 있다.

연합예배 및 선교찬양제 성료

언더우드 서거100주년 기념, 뉴욕/뉴저지서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연합예배 및 선교찬양제가 지난 13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집회를 가졌다.

뉴욕에서는 오후 5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언더우드를 파송한 미국장로교회와 언더우드가 세운 연세대 동문들이 중심이 돼 행사를 열었다.

1부 예배는 김영호 장로 인도로 개최되고 허봉기 목사, 성경봉독 김홍석 목사, 설교 김영호 목사("언더우드의 '알파One' 선교", 요 15:5-8), 언더우드 영상, 헌금기도 송병기 목사, 헌금특송 연세뉴욕 스트링 듀오, 특별공연 뉴욕필그림 선교운동단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찬양은 전영실 아나운서 사회로 프라미스 어린이합창단, 뉴욕장로성가단, 월드밀알선교합창단, 달라이티어린미국악선교팀, 뉴욕

조이풀합창단, 토폰주, CBSN합창단, 챔버콰이어 칸타빌레, 프라미스교회 연합성가대 및 오케스트라, 김영환 안주랜 듀엣 등이 출연했다.

이날 모은 헌금은 언더우드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세대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교지도자를 양성을 위해 세운 GIT를 후원한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같은 날 오후 7시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에서 언더우드가 졸업한 뉴브런즈윅신학교와 RCA교단이 주축이 돼 선교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를 통한 수익금은 뉴브런즈윅신학교 언더우드 세계선교센터 후원을 위해 사용된다. 콘서트에는 그랙 매스트 총장이 참가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했다.

(유원정 기자)



교회설립 40년을 맞은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가 지난 6일 감사축제를 가졌다.

"은혜의 40년, 은혜의 새 물결"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설립감사축제, 신영옥 특별공연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가 지난 6일, 설립 40주년을 맞아 "은혜의 40년, 은혜의 새 물결"이라는 슬로건 하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40주년 감사축제를 가졌다.

특별히 이번 감사축제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씨와 함께 하는 찬양축제였다.

1부 감사예배에서 서삼정 목사는 "오늘은 어제보다 지혜롭다"는 설교를 통해 "어제는 은혜의 40년이었다. 그러나 어제는 부족한 40년이였다. 우리 모두는 어제의 시간을 통해, 어제의 경험을 통해 오늘 좀 더 지혜로워졌고 성숙해졌다"며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까지 목적을 향하여 쉬지 않고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흐른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김성만 장로가 서삼정 담임목사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40년을 한결 같이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준 것을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하고 전 교인의 이름으로 증명했다.

준비위원장 이석주 장로는 인사말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40년 간 목회하신 분은 미주 뿐 아니라 해외 모든 한인교회에서 우리 목사가님이 처음 있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아름다운 노래로 깊은 감동을 주었다. Amazing grace, You raise me up 등 몇 곡은 제일장로교회 성가대 및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불렀다.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는 감사축제를 앞서 40주년을 기념해 아이티 고아들의 속소권립 후원을 위한 골프대회를 가졌으며, 영성 깊은 서삼정 목사의 시화전과 아틀란타 미술협회의 그림 전시회도 가졌다.

(기사제공: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RCA 뉴욕한인교협, 월례회 및 사모초청 행사

RCA한인교회 뉴욕한인교협(회장 유승례 목사)가 지난 10일 베어 마운틴에서 월례회 및 사모초청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석해 허드슨 강가 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으며 이후 베어마운틴에 올라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월례회에서는 2017년도 연합행사 대한 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매년 연합부흥성회 때 진행되는 타민족 학생 장학금 지원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타민족 대 한인 구성은 각각 7명과 3명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매년 임원 중심으로 장학금 등록 신청을 받되, 전도차원에서 담임목

사가 추천하면 불신자 학생에게도 기회를 주 복음을 접할 기회를 준다 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다음 세대 제자 양육을 위한 장학금 사업은 부회장 박준열 목사와 총무 임지운 목사가 실행위원으로 총괄직임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월례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박준열 목사의 사회로 변옥기 목사 기도, 한재홍 목사 설교("서로 사랑하라", 요13:34), 임지운 목사 광고, 이풍삼 목사 축도, 송홍용 목사 사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승례 회장은 이날 참석한 회원 및 사모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했다. (기사제공: RCA 뉴욕한인교협)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NY, NJ, Hawaii, and other regions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하나님의 평강 넘치는 축복의 밤”

제 9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박재웅/지휘 이데이빗/반주 은신그린) 제 9회 정기연주회가 13일 오후 6시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단장 박재웅 목사는 "아름 변제 찬양제를 드리게 됨을 감사한다. 오

늘이 있기까지 수고해주신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준 고문단과 부단장님, 총무와 임원들께 감사한다. 뿐만 아니라 본 합창단을 위해 광고로 후원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매워주신 참석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한다. 혹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화답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축복의 밤이 되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김인철 목사의 기도로 막을 올렸다.

이날 첫 무대에 오른 찬양단은 '사랑의 열매', '십자가 군병', '깨어라 먼동이 튼다' 등을 불렀으며 이 외에도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세요' 등

6곡의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특별출연은 조이플남성선교중창단(지휘 서문옥, 반주 이효경), Kama Boys&Girls Choir(지휘 류지원, 반주 이하늘), 기독교여성합창단(지휘 조한우, 반주 조혜정), 소프라노 줄리안 등이 아름다운 곡을 들려주었다.

한편 이날 합창제를 통해 직전 단장 정윤두 목사에게 공로패를, 아들 탐 감옥 선교회 임정수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전달한 뒤 참석한 모든 이들과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부른 뒤 이상기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목사장로 부부성가단 정기공연이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미주복음방송 주최 제1회 CCM경연대회에서 수상자들과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1회 미주복음방송 CCM경연대회

대상 에스더김..박아름, 허지애, 주빌리밴드 수상

제1회 미주복음방송 CCM경연대회가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12일 오후 7시에 성황리에 열렸다. 영예의 대상에는 오디션 K-팝스타 출신 에스더김(사랑의빛선교교회)이 차지했다.

임덕순 미주복음방송 사장은 인사말에서 "인간의 창조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위한 마음을 나누고자 CCM 경연대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대회는 경연의 자리이기 이전에 축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준비됐다. 참가자들과 대회

를 관람하기위해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반응하는 뜨거운 축제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1회 미주복음방송 CCM경연대회 수상자 명단이다.

대상: 에스더김(사랑의빛선교교회) △금상: 박아름(LA워십교회) △은상: 허지애(세리토스장로교회) △동상: 주빌리 밴드(올리브장로교회).

(박준호 기자)



LA 뮤직 사크라 제2회 정기연주회가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제2회 LA뮤직사크라콰이어 정기공연

제2회 LA 뮤직 사크라 콰이어(지휘 오정근) 정기공연이 11일 저녁 8시 월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모차르트의 글로리아 △트리글러스 콤베스의 글로리아 △허리갈제의 글로리아 △셋세마네의 기도 등 성가곡과 그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 영혼의 은총임

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거기 너 있었는가 등 찬송가, △이화우 △뜻있어 △아리랑 등 한국예술곡 등을 불러 가을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또한 소프라노 신선미와 피아니스트 이하늘이 무대에 올라 이날 공연을 더욱 빛냈다.

(박준호 기자)



OC열린음악회에서 CCM가수 장슬기 자매가 찬양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열린음악회 성황

오렌지카운티 열린음악회가 13일 오후 6시 애나하임동양선교교회(담임 김대성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전날 목사의 사화로 시작된 음악회는 송정명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한빛성경교회 성가대(지휘 이경원), 소프라노 김희우, 지저스 파이브, 피아니스트 메리 루이스(First Church of

NAzarene), 소프라노 이은경, 찬양가수 장슬기, 테너 오위영, 오렌지미션콰이어(지휘 장진영)가 출연해 수준 높고 은혜로운 공연을 했다.

이날 공연은 홀랜드 루이스 목사(First Church of Nazarene)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린 전도서 말씀세미나에서 김은정 미주장신대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생명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

충현선교교회 '전도서' 세미나, 강사 김은정 교수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는 전도서 말씀세미나를 9일 오후 7시30분 김은정 미주장신대학교 교수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본 교회 장년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은정 교수는 "전도서가 세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책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삶 속에서 고백하며 누리며 만족하며 살라는 긍정적인 고귀적인 내용이 곳곳에 발견되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도서는 지혜문학으로 분류되며 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전도서는 매우 비관적인 것처럼 이해될 때가 많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다'라는 기록은 인생무상을 한탄하는 듯 한 비관적 어조로 이해되지만 '헛되고다'라는 의미는 존재가 영속적이지 않고 매우 짧다는 의미이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매우 일시적이며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전도서는 한시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독자들을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 언급하며 "내게 생명이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장로성가단 제23회 정기연주회에서 혼성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제23회 남가주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 성황

제23회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정진식 장로, 지휘 조성환 목사) 정기연주회가 12일 오후 6시 30분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진식 장로의 환영사와 노창수 목사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장로성가단, 장로성가단 중창단,

그리고 장로성가단 멤버들과 그들의 부인들로 구성된 혼성합창 등을 선보였으며, 바리톤 채홍석, 남가주사랑의교회 호산나 찬양대, 해금연주자 이형래, 남가주사랑의교회 밴드 등이 찬조 출연해 연주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목회자재정세미나에서 문선영 재정전문가가 강의하고 있다

신시스 주최 목회자 재정세미나, 강사 문선영

목회자 재정세미나가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조승홍 목사)에서 11일 오전 10시 금융마케팅 전문회사 신시스 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문선영 재정전문가가 나서 재정 목표와 관리 노하우, 저축 및 절세 그리고 은퇴후의 삶에 대한 준비 등을 설명했다.

한편 신시스에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한 재정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오렌지한인교회 설립 40주년 음악회

오렌지한인교회(담임 김윤진 목사 643 W. Malvern Avenue)는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20일(주) 오후 6시에 갖는다.

▲문의: (714)871-8320

칼빈국제대학교 총장 취임감사 예배

칼빈국제대학교 김연택 총장 취임감사 예배가 19일(토) 오후 5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 14381 Magnolia Street, Westminster)에서 거행된다.

▲ 문의: (714)893-1652

찬양 사역자 모집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3200 N. San Fernando Rd)가 찬양사역자 및 지휘자, 반주자 등을 모집한다. 이력서는 이메일(joyful-ccc@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323) 259-3163

2017 YWAM 시니어 미니 DTS

2017 YWAM 시니어 미니 DTS가 오는 2017년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도미니카공화국 YWAM Viklla Mslla Base에서 개최된다. 등록비는 1인당 900달러(비행기표 제외, 부부등록시 10% 할인된다).

▲문의: (808)345-0807



남가주든든한교회 제 5회 찬양의 밤에서 특별출연한 아와나 어린이들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있다.

“영원한 약속 이뤄 가시는 주님 찬양”

남가주든든한교회 제 5회 찬양의 밤 성황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제 5회 찬양의 밤이 11일 밤 7시30분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손덕수 집사 사회, 기도 조한규 집사, 말씀 김현인 목사로 진행됐다.

김현인 목사는 '마리아의 찬양'(눅1:46-55)을 통해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게 된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 주님을 찬양했으며 능력의 주님과 영원한 약속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찬양했다. 이 밤에 우리도 맑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가운데 찾아가는 축복의 밤이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남가주든든한교회 찬양팀(리더 김홍철 목사)은 1부, 2부, 3부로 나눠 2시간 30분 동안 찬양을 이어갔다.

특히 특별 출연한 어린이 아와나 팀은 "One way", "Mighty to save", "You are my all in all"을 귀여운 울동과 함께 들려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와나 어린이들의 찬양과 울동이 끝난 뒤 남가주든든한교회 장로님들은 모두 단으로 나와 어린이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의 앞날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가대(지휘 김민규, 반주 홍윤지)의 특별 찬양은 아름다운 조화와 음률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불러 넣어 주었다.

남가주든든한교회 매년 11월 찬양의 밤을 준비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재확인 하며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성자 기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서울시장의 직책을 통해 친동생에 축제를 열고, 보수집권여당에서도 오바마와 동성애에 대한 궤를 같이하는 반기문 총장의 영입을 소망의 선택으로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그런 이들이 청와대 주인노릇을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도자들이 이러니, 얼마 전에는 경복궁에 한복을 입으면 무료입장인데, 남자가 치마한복을 왜 입으면 안되는가? 하면서 대낮에 남녀가 한복을 서로 바꿔 입은 채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소망을 위한 판 흔들기 현재의 대통령이나 지금의 대선 주자들에게서 전혀 미래의 소망을 찾기 어렵다. 어느 한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와 복음에 대해 믿고 신뢰할만한 언설을 표명하는 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위해 판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함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더 구정물들을 치워내고 순전하고 깨끗한 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위해 아름답고 고통의 시간을 섬리 가운데 허락하

셨구나. 그 과정이 지금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리라.

사랑, 기도, 절제 수 십년 미국생활을 하였음에도, 마음은 늘 고향소식에 귀를 기울이듯 연약하고 힘든 통증에 신음하는 조국의 형편이 더욱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같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한 가지는 고통의 통증이 있어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니엘처럼 조국을 향해 비판의 마음만큼 감절로 간절히 기도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절제이다. 무수한 말들이 여과장치 없이 매일 매일 쏟아져 나올 때마다 마음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것을 본다. 제목이나 내용들이 세상말로 '짜라시'에 해당할법한 가십거리 수준의 이야기도 쉽게 단정적으로 흘러나온다. 조금은 절제가 필요하다. 특히나 교회가 정치토론폰장이 되면 안된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조국과 미국을 사랑하고 기도하자.

davidnjeon@yahoo.com

한교연, 연합추진위 4명 파송...통합 급물살 임원회 '이단 배제' 전제, 시국과 나라위한 기도주간 선포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이 이단 배제를 전제로 (가칭)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연합추진위·위원장 이종승 예장대신 총회장)에 위원 4인을 파송하기로 했다. 연합추진위원회는 총 9인으로, 당초 한교연 3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각각 1인 등 7인이다. 최근 한기총과 한교연 소속 군소교단 각각 1인씩이 추가됐다.

한교연은 8일 오전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5-8차 임원회를 열고 교단장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합추진위의 위원 9인 중 한교

연 추천 목인 4인을 이단 배제를 전제로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임원들은 이날 연합추진위가 보낸 공문을 검토, 이단 배제를 명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전제로 연합추진위원 4인을 파송,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또 이들 4인에 대한 추천은 한교연 대표회장과 전 대표회장들에게 위임한다는 지난 제5-6차 임원회 결의를 확인했다.

임원회는 또 이번 한 주간을 시국과 나라를 위한 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38개 회원교단에 합심기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국

기도문도 발표하기로 했다. 기도문에는 "대통령이 최태민 최순실 부녀의 국정 농단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권력에 야합하여 불의를 묵도하고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대표회장이 발의한 한국 사회발전연구소 설치의 건은 조일래 대표회장에게 위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제6회기 선거관리위원장 양병희 목사를 대신해 제3회기 대표회장인 한영훈 목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인준했다.

“국가 어려울 때 골방 기도자들 모여 부르짖자” 국가기도연합 주최 ‘미스바구국기도연합기도회’ 연일 개최

국가기도연합은 11일 서울 대한문 광장에서 미스바구국연합기도회를 개최하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이후 한국사회의 치유와 화합을 간구했다.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기도회에서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주의 국가”라면서 “헌법과 법률이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진보단체 인사들은 여론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하야는 국정 의 중단을 뜻한다”면서 “국정 중단은 국민고통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정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국민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한탄했다.

최 목사는 “리더십이 실종된 시대인데 더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이 나서 화해자의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다.

국가기도연합이 11일 서울 대한문 광장에서 개최된 미스바구국연합기도회에서 3000여명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윤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도 “골방에서 기도하던 기도자들은 국

가 어려울 때 광장으로 나와 약한 영, 어둠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면서 “크리스천은 특히 국가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 등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자”면서 “박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도록 간구하자”고 말했다.

김재동 서울 하늘교회 목사도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 광풍과 같이 불어닥치고 있는 선동의 물결을 도의 힘으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12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집회가 광화문 등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기도회 참가자들은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5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미스바연합구국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한 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의 치유와 화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강연자들의 메시지를 경청했다.

태극기를 흔들며 삼삼오오 모인

이들의 얼굴엔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참석자들은 하루속히 난국이 해결돼 나라가 안정되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가는 데도 돌아가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도 많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인씨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반드시 지켜 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 반전의 역사가 이뤄질지 줄 믿는다”고 말했다.

에스더기도운동 이윤희 대표, 범무법인 아이엔에스 조영길 대표변호사, 김기동 윤치환 박만수 목사 등이 기도회를 인도했다. 김용서 청년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다. 이 대표는 “오늘 광화문 시위가 경찰과 충돌 없이 안전하게 끝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박근혜 퇴진 반대’ ‘반(反) 대한민국 세력 OUT’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탈북여성박사 1호’로 알려진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은 “우리 속담에 ‘독을 깨가와 쥐를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님, 왜 그렇게 약점을 잡혔는가. 안타깝다”고 반문한 뒤, “하지만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길 수는 없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정치인들은 권력에 눈 먼 자”라고 비판했다.

“기도의 힘 모으자” 한장총 5000기도단 발대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는 10일 경기도 안양시 새중앙교회에서 ‘한국교회 5000기도단 발대식’을 열었다. 기도단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세계선교와 평화통일 등을 위해 5000명의 성도가 주축이 돼 한국교회 안에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장총 관계자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축복기도의 응답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에게 나타났다”며 “사도행전 4장4절에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들

들이 이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 했다. 5000이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여겨 기도단의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5000기도단은 새한국통일선교연합과 함께 민족의 평화와 안녕, 남북의 화해를 염원하는 대부흥구국기도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단체는 한국교회와 함께 통일운동을 위한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형성, 통일기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설교한 한장총 상임회장 채영남(대한예수교장로

회 통합 직전 총회장) 목사는 “시국이 어지럽고, 개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크리스천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며 기도한다면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한국교회와 연합해 함께 기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히 다닌 사실도 확인됐다.

예장총합총회 총회장 전기영(78·서산총성교회)목사는 “총합총회가 89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안에 근화교회를 세우고 담임목사를 파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교회에 자주 출석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 당시 최태민은 ‘앞으로 근해 영애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 잘 모셔야 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이 대표회장은 “박 대통령이 장신대에서 여러 이유로 공부가 어려워 워치라 작은 교단에서 마음 편히 신학을 공부한 것 같다”고 했다.

또 “교회를 다니다 말야 안타깝다”며 “계속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으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각종 서류에 ‘무교’로 표시하고 있다. 가톨릭교인인 성심여·중고와 서강대를 거치면서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 한때 목회자 꿈꿨다 예장총합총회 관계자 증언 “계속 교회 성실히 다녔으면...”

박근혜대통령이 한때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공부를 했다는 일화가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교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1980년대 초·중반 서울 마천동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총합총회) 총회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8일 오후 강원도 양양금식기도원(원장 이춘석 목사)에서 진행된 종합총회 관계자들과의 대담 중에 나왔다.

이주태(53)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은 “당시 종합총회 총회장이던 조현종(91년 작고)목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인 근혜 양이 우리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조 목사는 ‘최태민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 근혜 양에게 직접 신학을 가르쳤다’고 자랑스레 말했다”고 전했다.

최태민을 도와 75년 대한구국선교단을 설립한 조 목사는 70년부터 20년간 종합총회 총회장을 지냈다.

당시 문공부에 등록된 종합총회의 교회 수는 350여곳에 달했다.

이 대표회장은 조 목사가 개척한 대구신천중앙교회에서 86년부터 4년간 전도사로 일했다. 찬양사역자 사역을 하면서 종합총회 신학교를 다녔다.

박 대통령이 신학교에 입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1981년 9월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 11월까지 대담 중에 나왔다. 당시 대학원장이었던 이종승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은 “박 대통령은 목회자 양성과정인 신학대학원(M.Div.)을 지원했지만 헬리어, 히브리어 등 힘든 과목이 많아 기독교교육학 과정을 추천했다”며 “박 대통령이 입학 몇 개월 뒤 공부 힘들다며 학업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교계행사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의지할 데가 없어 신학교에 입학했었다”고 털어놨다.

박 대통령이 한동안 교회에 열심

트럼프, 기독교 가치 수호에 ‘힘’ 될까 ‘짐’ 될까 미국 대통령 당선 한국교회 영향은?—신학자·목회자들의 분석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미국 백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표심이 꼽힌다. 트럼프 후보는 성추문과 막말 등으로 솔한 논란을 빚어 윤리성을 중시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자유주의 성향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이 클린턴 대신 트럼프를 선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사회는 물론 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된다' 정서=미국교회에선 역대 선거 중 가장 후보자를 선택하기 어려운 선거라는 목소리가 컸다. 미국 교회의 주류인 복음주의 그룹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공화당을 지지해왔다. 특히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등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이 다수 통과됐다. 그러나 트럼프의 성희롱 발언 등 추문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인 내에서도 지지를 철회하는 이들이 늘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지난달 중순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는 몰라야 한다. 힐러리도 마찬가지다. 둘 다 자책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선거일이 다가오자 개인보다는 당의 정책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존 맥아더 목사는 지난 6일 주일 설교에서 “미국 사회가 타락한 문화에 편승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경적 진리, 복음 선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격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해 사실상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티버넥스트 대표 김태오 목사는 “미국은 지난 7년 동안 친동성애, 친이슬람 법안을 추

진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를 보냈다”며 “미국 기독교인에게 힐러리는 ‘독사교’, 트럼프는 아마도 ‘썩은 사과’와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도덕적 흠결은 크지만 정당 차원에서 그래도 공화당이 기독교적 가치와 가깝다고 봤다는 분석이다.

◇한국교회, 평화와 사회통합 책임 감당해야=트럼프의 당선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트럼프는 장로교 배정의 집안에서 중순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는 몰라야 한다. 힐러리도 마찬가지다. 둘 다 자책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선거일이 다가오자 개인보다는 당의 정책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존 맥아더 목사는 지난 6일 주일 설교에서 “미국 사회가 타락한 문화에 편승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경적 진리, 복음 선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격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해 사실상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티버넥스트 대표 김태오 목사는 “미국은 지난 7년 동안 친동성애, 친이슬람 법안을 추

질서 속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천 세계감리교협의회(WMC) 회장은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우월주의 성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보호주의적이기 때문에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미국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인종주의와 세계평화주의에 역행하는 미국 사회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견고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안덕원 햇볕트리니티신학대학원 교수는 “성경은 분명히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사회를 지향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에 위배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막말 등 자질 논란 속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면을 봐야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 소망교회 장로인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럼프의 당선은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부의 불평등을 방관한 채 건전한 사회통합을 추구하지 못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인간존중, 사랑 등 기독교정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반성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품어 안지 못하면 사회 속에서 분노로 표출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배려와 경제·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사회적 약자를 품어 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성애 비판=고문행위’ ...희한한 법률안 더민주 인제근 의원 고문피해자 구제 법률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인제근 의원이 동성애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고문의 범위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고문의 정의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목적이거나 이유로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를 가하는 행위에 ‘성

별, 종교, 인종, 민족, 국적, 사상, 정치적 의견, 장애’와 함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집어넣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소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에이즈 환자의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다. 에이즈 검사를 빨리 받아보라”고 충고해도 고문에 해당될 수 있다. 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고문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선미(법률사무소 로하스)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은 단 한 번도 동성 간 성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적이 없다”면서 “게다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한국사회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용어다. 이런 걸 법안에 넣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려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기초를 두다보니 성적지향 문구가 들어간 것 같다”면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자구 수정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형사건 때마다 기독교에 ‘불똥’

최근 3년치 기사트위터 분석...성군관대 박해량·황수진씨 논문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정치·사회 분야 대형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2014년 세월호 사태로, 당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됐던 구원파가 주요 교단이 규정하는 이단임에도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정통 기독교와 혼동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쏟아지는 ‘최태민·최순실 사태’ 관련 보도에서도 기독교 연관설로 와전되면서 영종하게 불똥이 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박해량(성군관대 박사과정)·황수진(성군관대 석사과정)씨는 12일 서울 중로구 성군관대에서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역회 주최로 열린 제33회 기독교학술행사에서 ‘신문기사와 트위터에 나타난 언론·대중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기독교’라는 키워드로 최근 3년(2013-2015)치 기독교 관련 인터넷 기사 및 트위터 댓글을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기독교 관련 트위터 댓글은 총 17만4886건이었

대형사건 때마다 기독교에 ‘불똥’

최근 3년치 기사트위터 분석...성군관대 박해량·황수진씨 논문

분야	사건	트윗수	백분율
정치	안철수 (차별금지법, 종교인납세) 법 개정 관련	3459	50.9
	시국선언, 시국기도회	2148	
	이석기	1217	
	세월호, 구원파	786	
종교	신천지-전주기독교연합회	552	22.2
	교황	2043	
	목사망언	1255	
사회	퀴어 축제	269	26.9
	땅 밟기	2506	
	에블라 지역 선교	551	
	기타	265	

으며, 가장 많이 언급된 사건으로는 2014년 6월 ‘문창구 전 총리후보자의 친일 발언’(댓글 3459건)이었다.

정치·종교·사회 분야별(표 참조)로는 문 전 총리 후보자 발언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및 종교인 납세’ 시국선언·기도회 ‘세월호·구원파’ 등 정치 분야 언급이 50.9%로 절반을 넘었다. 종교 분야에서는 ‘신천지-전주기독교연합회’ ‘교황’ ‘목사망언’ 등이었고, 사회 분야는 ‘퀴어(동성애)축제’ ‘인도사원 땅 밟기’ ‘에블라 지역 선교’ 등의 댓글이 많았다.

논문을 발표한 박씨 등은 “트위터 댓글의 경우, 기독교의 사회적

인식이나 책무에 관한 사건이 발생한 날에 언급 비중이 높았다”면서 “교회나 기독교 내부의 이벤트보다는 현실 사회나 타문화, 타종교와 연관된 경우 댓글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월호·구원파·유병인 등의 명성이 언급되면서 따라붙는 ‘기독교’ ‘신도’ ‘교회’ 등의 단어는 정통 기독교 및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세월호·구원파·금수영 배제, 압수수색(2014년 5월 21일)’ 관련 기사에는 부정 단어 사용 비율이 5.39%로 긍정 단어 사용 비율(1.17%)의 4.5배에 달했다.

이밖에 최근 3년간 인터넷에서 다뤄진 기독교 관련 기사는 총 10만339건으로 집계됐다. 일간 및 교계지 별로는 국민일보 기사 건수(1만1643건)가 최다였고, ‘사랑’ ‘평화’ ‘행복’ 등 긍정적인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언론 또한 국민일보(10.1%)였다.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는 “다수의 안티 기독교 세력과 이단들은 인터넷 공간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 떠도는 기독교 관련 기사와 근거 없는 루머를 악용해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 교계 대응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한국교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적극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halom의 교육학(10)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파시빅 대학교 교수)

shalom의 교육방법론 (1): Do you understand?

하브루타 교육을 아십니까?

매년 발표되는 노벨상 수상자명단에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유대인들은 세계인구의 0.25%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30%에 이르고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생들 중에 유대인들은 매년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 재학생들의 30%는 유대인들이다. 세계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대인들, 과연 비결이 무엇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바로 교육의 힘이다. 어려서부터 질문하고 대화하며 논쟁하는 유대인들의 교육방식, 이를 하브루타(hevruta)라고 부른다.

탈무드 논쟁에서 유래된 하브루타는 서로 짝을 지어 학생들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유대인 학교 도서관은 절간처럼 조용한 곳이 아니라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마치 상가처럼 시끄러운 장소이기도 하다.

하브루타는 질문이 핵심이다. 아이들에게 지시나 요구, 설명을 통하여 가르치기보다는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안을 찾아내게 한다. 우리의 교육은 선생님의 일방적인 말씀과 지시를 통해 조용히 암기하고 기억하는 수동적인 교육이 대세인데 비하여 유대인의 교육은 아이의 호기심을 계속 살려서 스스로 궁금한 것을 탐색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나 선생님은 모범답안을 주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아이들을 자극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이 "오늘은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을 했니?"라고 물어본다.

사실 하브루타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시작된다. 태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와 대화한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에 의해 계속된다.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은 계속 대답하며 깨닫게 한다. 가정, 학교, 회당에서 이런 형태의 교육이 계속 지속된다.

학부모님들에게 제안한다. 절대 아이들의 숙제를 대신 해주지 마시라.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들의 모든 것을 기꺼이 대신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아이들 대신 책을 읽고, 대신 프로젝트를 하고, 사회봉사 활동도 대신 해주고, 선생님들과 미팅에서 아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준

다. 아이들 성적 결과가 낮게 나오면 정작 당사자들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전전긍긍하게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호출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을 조속함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린다.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아이들을 돕게 될 줄 모르나, 결코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한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아이들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

우니 어쩌니, 인생이 힘들어서 못할것다는 등 포기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말라.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인동초처럼 온갖 풍상에도 살아남는 진정한 승자로 키워내야만 한다.

학생들이 이해하는 교육

필자가 하브루타교육에 대해 장황하게 언급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교육방식이 바로 이런 종류의 과정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질문과 대화, 탐구의 과정을

등). 그리고 보면 주님의 교육 목적은 학습자가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해"(그리스 단어로 *υνώσκειν*)라는 말이 성경에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이해라는 말은 단순히 수학공식이나 기본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특성을 파악하여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를 자기 상황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해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사물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통찰하고 둘째, 이를 실행에 옮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인지 교사가 이해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사가 잘 가르쳤다고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하지만 학습자가 받아들일지 못했다면 그 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여기에서 세 번째 중요한 평가의 포인트가 있다.

주님은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보다는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에 더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는 것이다. 교육학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학습 도중에 행하는 학생들이 가르친 바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평가와 학습을 마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고 시험 성적의 결과로만 학생을 평가,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해왔다. 그 때문에 온갖 부정이 들어왔고 어떤 것을 하던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편만해진 것 아닐까? 그러나 주님은 달랐다.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에, 제자들이 처음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셨다. 주님의 형성평가는 제자들이 총괄평가에 합격했으리라 믿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런 후에야 모든 과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던 것이다.

Understanding by design

요즘 미국 공교육에서 등장한 컴먼코어(Common Core State Standards) 커리큘럼의 이론적 토대가 된 것이 Wiggins와 MaTighe의 Understanding by Design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Backward Design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에게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먼저 학습의 목표, 기준(Standards)을 선정하고, 둘째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이 목표나 기준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이를 평가할 것인가를 전략을 수립한 후에 마지막으로 교사가 이를 가르칠 학습 전략이나 내용을 선정하고 계획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여기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해한다는 것을 컴먼코어에서는 여섯 가지로 설명한다(설명, 해석, 적용, 공감, 자기지식). 이해하면 어떤 복잡한 사건이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자신의 말로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해했다면 이를 학습자가 현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이해했다면 사안에 대한 자기만의 고유한 관점(perspective)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해했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사안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해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

필자가 전술하게 된 것은 이러한 지금 강조되는 교육이론이나 접근 방법이 실은 주님이 이미 사용하셨다는 사실이다. "이해"를 위한 여섯 가지 설명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였고(요3:10),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를 가르치셨으며(막10:10-20), 제자들에게 형제와 부모에 대한 새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였고(마12:46-50),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회복과 함께 새로운 비전에 대한 관점을 갖도록 했으며(요21:15-18),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율법사에게 이웃의 의미를 깨닫게 했으며(눅10:37), 만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베드로가 깨닫게 하셨다(눅5:8).

hlee0414@gmail.com

예수님의 교육방식인 질문과 대화, 탐구과정 사용은 현대교육이론과 같아 학습자 이해 '설명, 해석, 적용, 공감, 자기지식'...중간점검이 목적

게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아이들은 어떻게 성공하는가"(How children succeed)라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의 저자 Paul Tough는 아이들의 성공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한 결과 아이들의 성공은 학업성적, 지적 능력이 아니라 태도, 가치관, 삶에 대한 자세 등의 비인지적(non-cognitive)요소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그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실패를 통한 학습의 경험이 아이들의 미래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발견하고 부모님들에게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좀 더 도전하도록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의 논조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볼 때 애달픈 순간이 와도 꼭 참고 아이들의 질문에 정답을 가르쳐주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부모님이 매번 정답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타율적으로 변화할 뿐 아니라 진정한 자기발전의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만다.

오늘날 가장 우대받는 교사의 상이 무엇인가? 바로 교육내용을 잘게 쪼개서 아이들이 잘 씹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입속에 넣어주는 교사들이 우수한 교사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천만에! 이런 교사들 때문에 아이들이 자립심을 가지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삶이 어려

사용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정답을 학습자들의 입에 넣어주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주님은 질문, 이야기, 우화, 비유 등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학습자가 스스로 찾게 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일정한 수준의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아무나 이해할 수 없었지만(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요6:60)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진리를 발견한 소수의 사람들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무리들이 놀랐고(마7:28), 도전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둘째, 주님의 가르침은 과정중심이였다.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중요성을 두셨고 늘 중간중간에 학습자가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으셨다. "내가 말한 바를 이해했느냐?" 주님의 교육은 바로 질문을 통한 학습자의 이해를 추구하시는 과정인 것이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가르친 후에 "이해했느냐?"라고 물으신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마15:51, 마15:16, 마16:8, 막4:13, 막7:18, 막8:17, 요3:10, 요8:43, 요10:6

치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결과를 점수 매기는 평가, 두 가지로 구분한다. 통상 전자를 형성평가라고 하고 후자를 총괄평가라고 부른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총괄평가에 더 많이 강조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수능 시험, ACT, SAT, 기말시험, 혹은 대부분 정부에서 시행하는 학습성취도 평가는 대부분 이 범주에 해당된다. 교사들은 이 시험성적의 결과에 따라 상장도 주고, 점수도 매기게 되므로,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이러한 성적의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최종결과보다는 학습 도중의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다. 질문, 비유, 이야기를 통해 학습의 과정 중간중간에 주님은 질문을 하신다. 내가 한 말을 이해했느냐? 이 비유의 본 뜻이 무엇인 줄 이해했느냐? 사실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F학점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형성평가의 목적은 점수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습자가 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중간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교사는 다시 설명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강조하지 않고 총괄평가라는 교육의 결과만을 너무 집착하는 데서 오늘의 교육 문제의 핵심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강사: 라흥재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교토소 선교칼럼 (9)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문서 선교와 모슬림 재소자의 변화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떻게 변화 프로젝트 교토소 문서 선교가 시작되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2003년부터 아답스 카운티 교토소에서 채플린(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후 저는 재소자들의 신앙서적 필요에 비해 책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한동안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교토소밖에는 아주 좋은 신앙서적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재소자들은 그런 책들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노숙자와 빈민층, 그리고 고아로 자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회가 많고 부유한 곳이 미국이라고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지상천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위반 벌금을 내지 못해도 교토소에서 형을 살아야 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물론 마약과 술 중독으로 인해 교토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재소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싶어 합니다.

더니 아직 안 읽어본 책이라며 그 책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M은 예배를 드리러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걷는 길"을 읽는 중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에 예배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화 역시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단순히 말로 전도할 수 없었던 무슬림 재소자가 신앙서적을 읽고 변화되는 것을 저는 전에도 보았습니다.

문서선교가 교토소 선교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선교전략인지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교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문서선교에 관해 잘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변화프로젝트 문서선교에 동참하시며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스페인어로 "예수님과 걷는 길" 만권을 출판할 계획으로 기도를 하고 선교헌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한인 재소자들이 있으므로 한국어 신앙서적을 출판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으므로 교토소는 외국에 선교를 나가지 않고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재소자 인구는 10억 가량인데 미국은 세계에서 재소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서 230만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과 어둠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서로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토소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것 같이 자를 생각하고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13:3). 재소자들을 돕는 것은 재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동참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25:40).

yonghui.mcdonald@gmail.com

감사가 먼저입니다!

'2016 대선 후유증 불구 추수감사절 의미 제대로 선포해야!

미국 대선은 끝났지만 어느 때보다 깊은 분열상을 드러낸 이번 선거의 후유증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 연인들의 사이마저 갈라놓고 있다. 지난 대선전에서 지지후보와 최근 선거 결과를 놓고 의견 충돌을 빚은 가족들 가운데서는 다가온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에 모이지 않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정도로, 가족 간에 지역 간에 갈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이 든 백인 부모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자식들은 힐러리를 지지한 경우 즉 정치적 이견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한 집에 모이지 않게 됐다고, AP는 보도한다.

또한 이번 대선은 점점 커지는 도시와 농촌 간 분열도 극명하게 드러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는 많은 미국 대도시의 번영이 나머지 지역과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텍사스주 오스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와 오글랜드,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도시 지역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득표율이 최저를 기록한 반면,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등 과거 민주당을 지지한 중서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가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넘어간 것도 도시와 소도시 사이의 정치적 이견이 점점 커지는 두 지역 간 분화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분열의 양극화 현상 중심에서도, "감사가 먼저"라고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찾아온다. 날이 굵으면 굵은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그 감사가 비로써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이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가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모범적인 사례다.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그다지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이들은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으며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 진 빚이 이자가 붙어서 돈에 쫓돌리는 경제난에

결과에 따른 분열로, 세상이 어수선한 요즘 감사의 의미는 어느 때와 다르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더욱 중요한 때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

찾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못돼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초로 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할까.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물론 오늘 도시에 사는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삶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감사가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없다.

추수감사절이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절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즐거움의 축제여야 한다. 추수감사절이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축제의 절기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할 줄 모르고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으며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또한 추수감사절은 함께 하는 사랑의 축제다. 사랑이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축제로!



도 시달렸다.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했으며, 완두콩 농사와 보리 농사도 망쳤다. 옥수수도 20에이커의 밭에서 난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도 해쳤으며, 날씨도 좋지 않았다. 잉글랜드에서 온 이민인 청교도들로부터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인디언들의 항쟁과도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돌보아 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린 일에서 유래한 명절이 추수감사절이다. 환경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환경을 보듬어 안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처음 지켰던 추수감사절은 이제 그 의미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테러와 전쟁으로 그리고 대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풍요함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한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길 믿고 감사했다. 추수감사절은 이러한 청교도들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야 한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중 하나가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감사의 대상을 바로

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권면한다. 구약 이스라엘의 경우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감사절은 1년에 두 번이었다. 맥추절(麥秋節)과 수장절(收藏節)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한다.

출23: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둬들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

현실을 바라보면 남의 것을 빼앗아 소유하려는 욕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팽배해 있으나 자기를 희생해서 남에게 주고자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은 너무도 메말라 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잔치를 가져야 한다. 절기는 혼자서 지켜지고 행해진다면 의미가 없다. 함께 해야 한다. 그간 우리의 주변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을 초청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통한 기쁨을 나눠야 한다.

진정으로, 감사는 바로 우리의 현장, 즉 분열과 갈등으로 어수선한 이 시간부터 시작돼야 한다. 감사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경스러움이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청교도들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세다.

(편집부)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2. 소극적으로 뒤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사모형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목사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모형이 있다. 막후에서 목사님에게 설교 자료를 수집해주고 좋은 예화를 뽑아서 제공해 준다. 이런 사모는 실력 있는 사모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는 목사님이 미처 시간을 내지 못하는 여성잡지 등을 읽어 현대인들이 쓰는 유행어까지도 알려주어 남편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공감 가는 설교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1)장점 (1)사모가 조용한 성격으로 집에서 독서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가정 일에 충실할 수 있으니 사모에게 유익하다. (2)교회에 많은 일에 참여하지 않으니 교회 일로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사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유익하다.

2)단점 (1)목사님은 밖에서 매일 바쁘게 뛰는데 사모는 집안에서만 있으니 균형이 잡

서 보편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한다. 어떤 사모는 "사모는 가정적이어서 하고 여성적이어서 한다"라고 말한다. "사모는 교역자가 아니므로 교회 일에 참여할 의무도 없고 전혀 참여해서도 안된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또 한 어떤 사모는 "교역자는 남편이지 나는 아니다. 나는 다만 그 남편의 평범한 아내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러한 사모는 소수이지만 그들은 사모가 목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필박만 받고 오히려 목회에 역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구태어 고생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우지도 못할 여러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강하게 목회 사역 참여를 부인하기도 한다.

그러면 왜 사모가 남편의 목회 사역에서 완전히 격리된 초연한 유형의 사모의 길을 택하는지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한다.

첫째, 사모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강한 능력과 보람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남편 목사의 목회 사역에 전혀 참여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남편의 목회 사역에서 격리된 사모의 길을 걷는 사모가 있다.

둘째, 사모 자신이 건강의 문제나 성격상, 또는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전혀 자

(2)남편의 목회 사역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니 교회 일이나 교회 문제 등에 신경도 쓰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다. (3)교회나 여성교회에서 사모에게 어떠한 부탁과 기대도 하지 않으니 사모는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4)사모가 교회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서 남편 목사가 집에 돌아와서 교회 문제를 사모와 의논할 필요가 없으니 목사가 집에 들어와 편히 쉬 수 있다. (5)사모가 밖에서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일함으로써 사모는 자신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자신이 벌어들인 부수적인 수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회자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간다.

2)단점 (1)사모가 자신의 일로 바쁘게 지내니 오히려 목사가 사모를 도와 이런 저런 일을 하느라 목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게 되고 교회에 그만큼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2)교회 일에 일체 참여하지 않으니 참여의식도 없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없다. (3)목사님은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사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15)



이희숙 사모

하지 않는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다.

(2)자녀들이 어린이 관중지만 만일 자녀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났을 경우는 사모가 혼자서 집에만 있게 되니 소외감이나 외로움이 빠지기 쉽다.

(3)사모가 무능하여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교인들의 비난을 받기 쉽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 사모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집을 떠나니 답답하고 외로워서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목사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밖에 나가 활동하니 자신은 집에서 혼자 사는 기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양로원에 찾아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3. 목회 사역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격리된 사모형

남편 목회에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목회 사역에 참여하는 사모와 대조적인 격차를 보인다.

큰 교회나 도시 교회는 지도자가 많아서 사모의 힘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모들이 자기의 전공 분야를 찾아 직장을 다니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한다. 아니면 사모라는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으면서 가정을 지키면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목사님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모형이 있다. 막후에서 목사님에게 설교 자료를 수집해주고 좋은 예화를 뽑아서 제공해 준다.

신이 없다고 판단될 때 목회 사역에 일체 관여하지 않게 된다.

셋째, 목사님이 받는 사례비로는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모가 직접 밖에 나가서 뛰어야 하므로 시간도 없고 피곤하여 교회 일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이다.

넷째, 남편 목사님이 '사모는 일체 교회 일에 관여하지 말고 손을 떼고 집안일에만 충실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의든 타의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남편의 목회 사역에 관여하지 않고 완전히 격리된 사모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자.

1)장점 (1)교인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비평과 필박을 받지 않는다. 물론 '사모가 교회 일에 너무 무관심하다' 아니면 '사모가 너무 게으르다' 무능하다는 비판은 받게 되더라도 앞에 나서서 많은 일을 하는 사모들이 받는 비난과 필박을 받지 않는다.

모와 함께 의논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지 못한다.

영적 지도자인 목사는 성도와 나눌 수 없는 목회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외롭고 답답해 할 때가 많다. 물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위로받고 해결 받지만 목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에제르' 사모와 함께 문제를 나누기 원한다.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또한 지혜로운 아내의 조언이 필요할 때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 목회 사역은 치열한 영적전쟁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에제르'인 사모로부터 정신적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할 때 목회 사역과 교회에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4)사모의 강력한 경제 능력이 오히려 남편 목사를 게으르고 무능한 목회자로 만들어서 결국 목회에서 손을 떼게 할 때가 있다.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장담의 위험성(마26:31-35)찬13장

신앙생활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확신으로 하는 것이지 교만에서 나온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와 제자들의 장담이 위험한가? 첫째, 다른 사람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고 장담했습니다(33).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자신을 더 높이는 마음이 주님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장담했습니다(35). 다른 사람과의 비교보다

더 높은 수준인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장담함으로 그 극치를 보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장담은 자기를 신뢰한 증거입니다. 셋째,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35). 주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리라는 겸손을 떠난 말은 모두 주를 끝까지 따를 수 없게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복됩니다.

화 갯세마네의 기도(마26:36-39)찬510장

그리스도의 수난에 포함되는 갯세마네 기도는 구속을 성취하는 도구임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그것은 아버지의 최후의 잔을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최후의 잔이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38). 둘째, 그것은 깨어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39). 주님이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주님의 구속에 보태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에 동참케 하려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다. 그 고난에 동참할 자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뤄야하고 이를 수 있기 때 묻니다. 셋째, 주의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39). 아버지의 뜻 중 뜻은 대속의 죽음뿐입니다. 성부는 내어주시고 성자는 겸손히 자임함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갯세마네 기도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그 세계로 나아갑시다.

수 연약한 육신(마26:40-46)찬177장

사람들은 41절의 말씀을 육신의 약함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하나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여기 나온 육은 육체를 말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욕욕, 자아, 옛사람 곧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일은 이 욕과의 싸움입니다. 영육의 갈등으로 고통하는 바울은 이것의 약함과 교묘함을 알고 탄식하였습니다(롬7:)

둘째, 여기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거둔다 마음의 소욕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가진 영혼으로 모든 선한 열매의 원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영에 내주해 그로 하나님만을 좋아하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영광에 동참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패성을 제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 주님이 잡히신 이유(마26:47-56)찬496장

유다를 앞세워 주님을 잡으려는 군병들의 활동은 무지하고 잔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왜 그렇게 잡히셨습니까? 첫째, 그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47-50). 성부가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을 성자가 자임함으로 받으시기 위해 스스로 잡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이 둘이 조화를 이뤄 완성하신 최대의 사랑사건입니다. 둘째, 그는 성경을 성취하려고 그리하셨습니

다(54,56). 주님의 거절은 성경과 선지자의 예언성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성경성취에 초점을 맞추신 주님의 성경관은 교회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한 자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52). 죽으려 죽음을 이기기로 고난을 고만을, 약으로 선을 이기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의미에 착념합니다.

금 공회 앞에 서신 주님(마24: 57-68)찬206장

십자가 고난의 서곡처럼 예수님은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 산헤드린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이신 진리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거짓의 소굴에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59).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대로 당하십시오로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둘째, 침묵으로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62,63). 선지자는 말로도 증거하지만 침묵하는 삶으로서 더 큰

확증을 나타냅니다. 셋째, 자신이 그리스도 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대체사장의 네가 그리스도냐는 질문에 주님은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하시고 영광 중에 오실 거 판주이심을 이중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거짓의 소굴에서 진리는 힘있고 온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살아 갑시다.

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함(마26:69-75)찬337장

그리스도의 고난은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기회가 주어질 때 무뎠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첫째, 한 여중 앞에 그리스도와의 지연관계를 부인했습니다(69-70).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과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둘째, 여전히 나사렛 예수와의 더 좁은 지연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71-72). 죽음으로 맹세코 주를 따르던 베

드로의 기개는 사라지고 도리어 맹세코 부인하는 그는 정말 마귀의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셋째,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74-75). 육신의 연약 속에 무너져 내린 베드로의 부인함이 끝이 아니고 주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혜가 기어코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 가야 합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Los Angeles, CA area.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등문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인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오렐산선교회, 엘버인침례교회, 윌셔크리스천교회, 은혜인교회, 주님세계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Each entry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s.

감사절 축하 광고

Happy Thanksgiving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찌어다
(시 105:1)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Tel. (714)521-0991 Cell.(714)521-4636</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p> <p>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Tel. (323)913-4499 Fax.(323)913-4494</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p> <p>Tel.(562)691-0691 Fax.(562)691-0698</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p> <p>1645 Beverly Bl, L.A., CA 90026</p> <p>Tel. (213)481-2779 Fax.(213)481-3761</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p> <p>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Tel. (714)772-7777 Fax.(714)772-0777</p>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p> <p>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p> <p>Tel. (718)464-2295 Fax.(718)762-4693</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p> <p>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 NY11357</p> <p>Tel. (718)361-9199 Fax.(718)361-943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p> <p>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Tel. (516)295-7987 Fax.(516)883-1961</p>	<p>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p> <p>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p> <p>Tel. (718)224-1993</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p> <p>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p> <p>Tel. (718)639-3021 Fax.(718)507-6376</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p> <p>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Tel. (201)342-9194 Fax.(201)943-5204</p>	<p>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p> <p>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Tel. (702)579-7576 Fax.(702)257-9191</p>	<p>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p> <p>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p> <p>Tel. (702)749-9909 Fax. (702)478-7224</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p> <p>37-57 104St, Flushing, NY 11368</p> <p>Tel. (718)961-2171 Fax.(718)961-3631</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p> <p>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Tel.(610)222-0691 Fax.(610)222-0692</p>	<p>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p> <p>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Tel.(213)381-2202 Fax(213)381-2535</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p> <p>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Tel. (410)461-1235 Fax.(410)461-6823</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중운</p> <p>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Tel. (215)945-1512 Fax.(215)945-2095</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p> <p>2 Main St, Hopkinton, MA 01748</p> <p>Tel. (508)435-4579 Fax.(508)435-5467</p>	<p>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p> <p>21519 S. Menlo Ave, Torarncce CA 90502</p> <p>Tel.(310)749-0577</p>	<p>샤롯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p> <p>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p> <p>Tel.(704)529-0900 Fax.(704)529-0998</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p> <p>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p> <p>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Tel.(206)527-0981 Fax.(206)524-1746</p>	<p>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p> <p>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p> <p>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Tel. (949)857-9425 Fax.(949)857-9472</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p> <p>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Tel. (215)542-0288 Fax.(215)542-9037</p>	<p>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p> <p>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p> <p>Tel.(718)570-5858</p>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p> <p>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Tel. (915)755-1490 Fax.(915)751-4365</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p> <p>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Tel.(907)344-6446, Fax.(907)344-3182</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Tel. (714)446-6200 Fax. (714)446-6207</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p> <p>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Tel.(703)941-4447 Fax.(703)941-4448</p>	<p>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p> <p>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Tel.(213)384-7274 Fax.(213)384-8638</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p> <p>168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8</p> <p>Tel. (714)524-8800 Fax.(562)690-8044</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p> <p>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Tel. (804)560-7500 Fax.(804)560-7514</p>	<p>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Tel. (310)530-4040 Fax.(310)530-8400</p>
<p>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p> <p>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p> <p>Tel. (718)672-1150 Fax.(718)672-1151</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p> <p>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Tel. (718)886-4040 Fax.(718)358-7789</p>	<p>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p> <p>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Tel. (215)927-0630 Fax.(215)927-0643</p>	<p>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안상수</p> <p>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Tel.(860)643-4738 Fax.(860)647-0565</p>	<p>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p> <p>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Tel.(808)585-1859</p>	<p>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p> <p>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p> <p>Tel. (516)277-1103 Cell.(917)922-0500</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p> <p>2122 Metcalf St., Hon., HI 96822</p> <p>Tel. (808)947-5252 Fax.(808)947-5151</p>